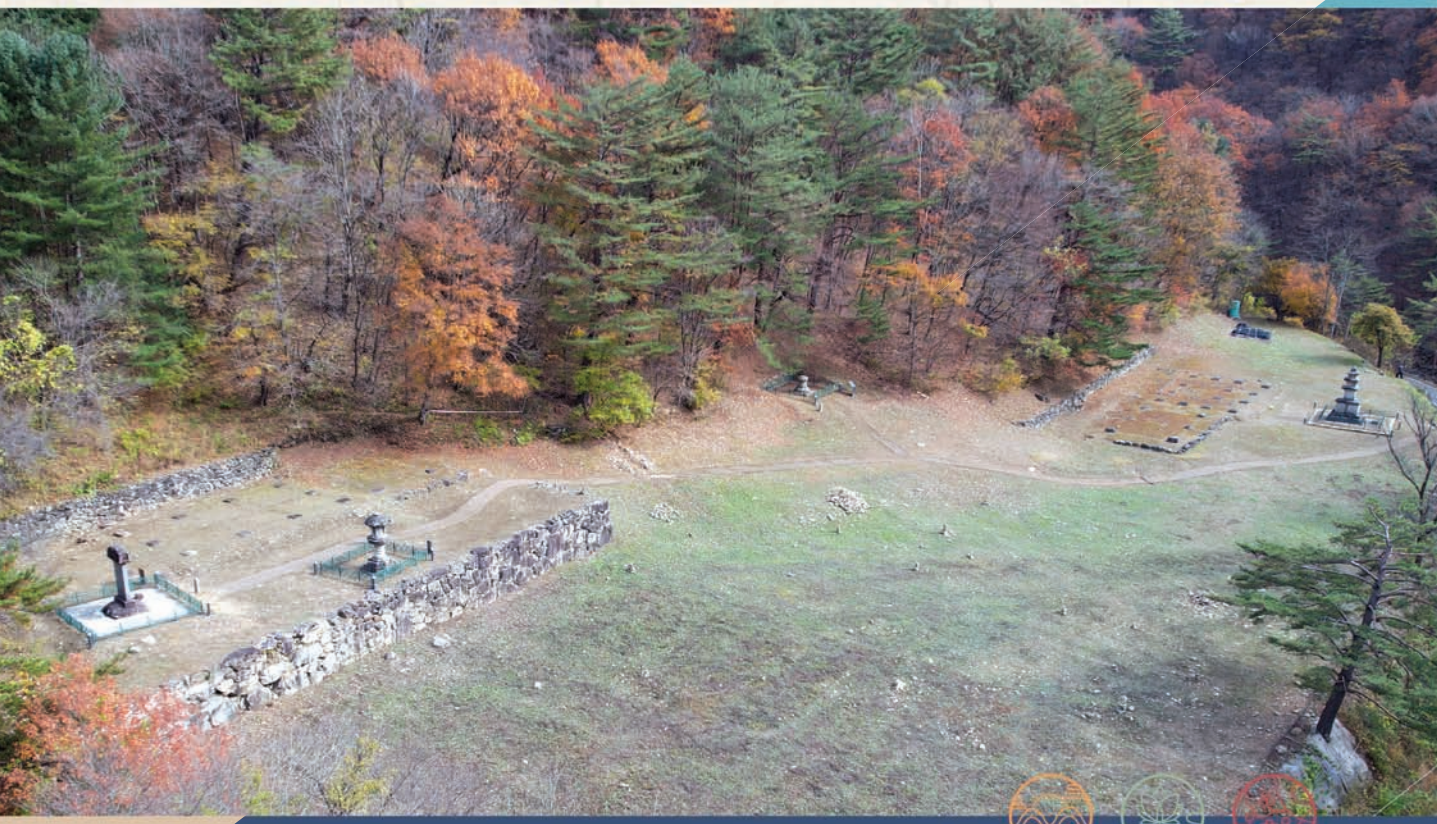
襄陽 地域의
寺址 및 近·現代寺刹



襄陽文化院

襄陽 地域의
寺址 및 近·現代寺刹

襄陽文化院

목 차

Ⅰ 사 지 (寺址)

사림사 선림원지(寺林寺 禪林院址) ---- 4
서림사지(西林寺址) ---- 20
개운사지(開雲寺址) ---- 23
도적사지(道寂寺址) ---- 27

Ⅱ 근 · 현대사찰 (近 · 現代寺刹)

죽도암(竹島庵) ---- 34
망월사(望月寺) ---- 36
견불사(見佛寺) ---- 40
지장사(地藏寺) ---- 42
문수사(文殊寺) ---- 44
용화사(龍華寺) ---- 46
동해사(東海寺) ---- 48
불탑사(佛塔寺) ---- 50
보현정사(普賢精寺) ---- 52
현불사(見佛寺) ---- 54
휴휴암(休休庵) ---- 56
법상사(法相寺) ---- 62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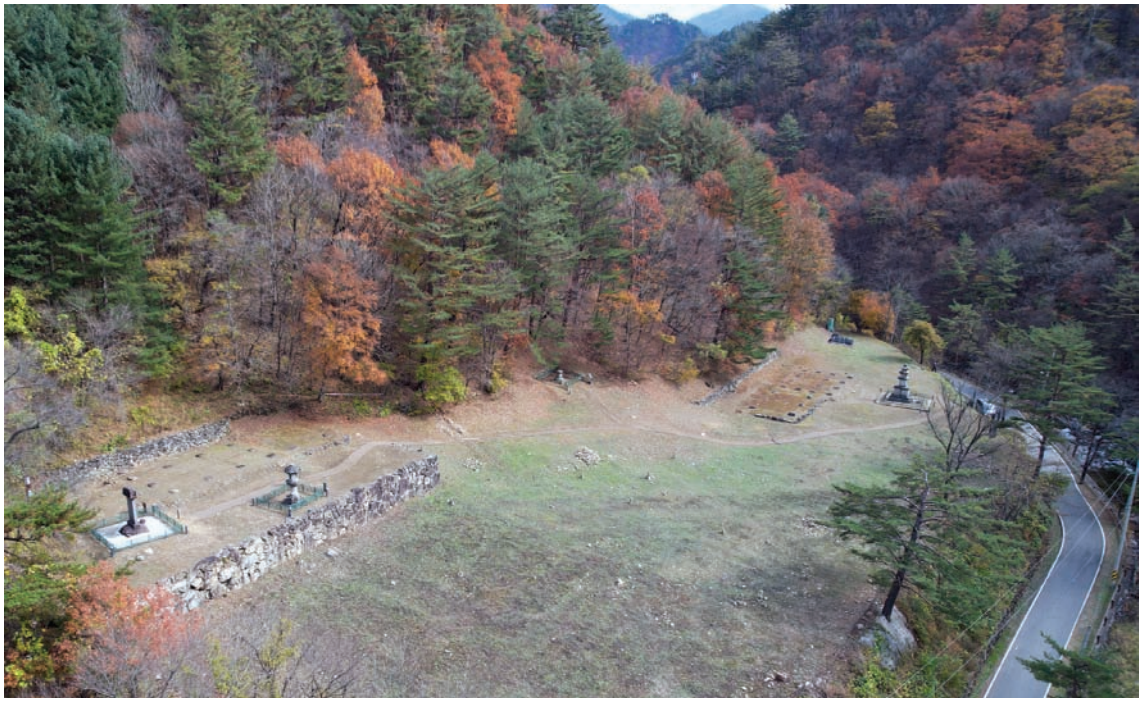
사지

(寺址)

사림사 선림원지
(寺林寺 禪林院址)

위치와 창건

선림원지(禪林院址)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서면 황이리 424번지 일원)로 설악산 자락인 미천골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850m쯤 올라가면 나오는데 발굴조사 시 출토된 유물은 통일신라부터 고려전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림사 선림원지 전경

선림원지(9,096㎡)는 아직 정확한 사명(寺名)이 기록된 문헌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이 1985년 7월부터 1986년 8월에 걸쳐 이 사찰을 발굴한 결과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順應法師)등이 창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48년 출토된 신라 범종명문(梵鐘銘文)에 의하면, 804년(애장왕 5)에 해인사 등 화엄종계통에서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발굴 시 출토된 기와로 보아 적어도 9세기 초에 창건되었다.

홍각선사는 경문왕 13년(873)경 억성사(億聖寺)로 돌아와 금당과 불전을 새로 짓는 등 중창불사를 주도하였다. 홍각선사는 880년에 열반에 들었으며 홍각선사탑비는 886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적어도 홍각선사 당시는 절 이름이 "억성사"로 확인된다.

'억성사'는 신라 선종의 제2조로 추앙되고 있는 염거화상(廉巨和尙)이 주석한 곳으로서, 한국 선종사(禪宗史)에 있어 진전사와 함께 중요성이 크다. 염거화상은 도의(道義,?~825년)선사의 제자가 된 이후 844년 입적할 때까지 억성사에 머물렀으며, 가지산문의 개창조(開創祖)인 체징(體澄, 804~880년)은 10년간 이곳에 와서 수학(修學)하였다.

따라서 억성사는 도의-염거-체징으로 이어지는 가지산문의 계보가 성립된 곳으로서 매우 중요한 유적지(遺跡地)이다.

고려 초기까지는 대규모의 절로 자리하고 있었으나 900년을 전후하여 대홍수와 산사태로 매몰된 뒤 폐사지가 되었다. 현재 석축 위에 펼쳐진 절터에는 삼층 석탑, 석등, 탑비, 승탑과 금당지와 조사당(祖師堂)의 주춧돌이 있다.

선림원지의 삼층석탑과 석등, 홍각선사탑비, 승탑(부도)은 1966년 9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선림원지는 1982년 강원도 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었다.

첫 번째 발굴조사는 1985~1986년에 있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2차례 발굴조사에서 금당지와 조사당지 등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금동여래입상, 금동풍탁, 용면와, 막새기와, 와당, 금동장식, 철정(鐵鋌) 등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두 번째는 약 30여 년이 흐른 뒤인 2015~2018년에 발굴조사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동불과 부도 옥개석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상 : 도의대사 · 염거화상 · 보조선사 체징 진영과
하 :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의 비문에 표기되어 있는 가지산문 제1조 도의, 제2조 염거, 제3조 체징.

발굴조사

선림원지의 발굴은 모두 4차례 이루어졌는데 1985~1986년도까지 동국대학교 선림원지발굴조사단에 의하여 2차례가 진행되었고, 2015~2016년까지 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2차례 진행하였다.

● 동국대학교 선림원지 발굴조사단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선림원은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順應法師) 등이 창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900년 전후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절터가 완전히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부도비와 석등, 삼층석탑 등은 1965년에 복원한 것이다.

절의 가람배치는 삼층석탑 뒤에 앞면 3칸, 옆면 4칸에 맞배지붕의 금당 건물이 있었으며, 주춧돌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어 오른쪽에 금당과 잇대어 또 하나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편 언덕의 석등 북쪽에서도 앞면 3칸, 옆면 2칸의 건물지가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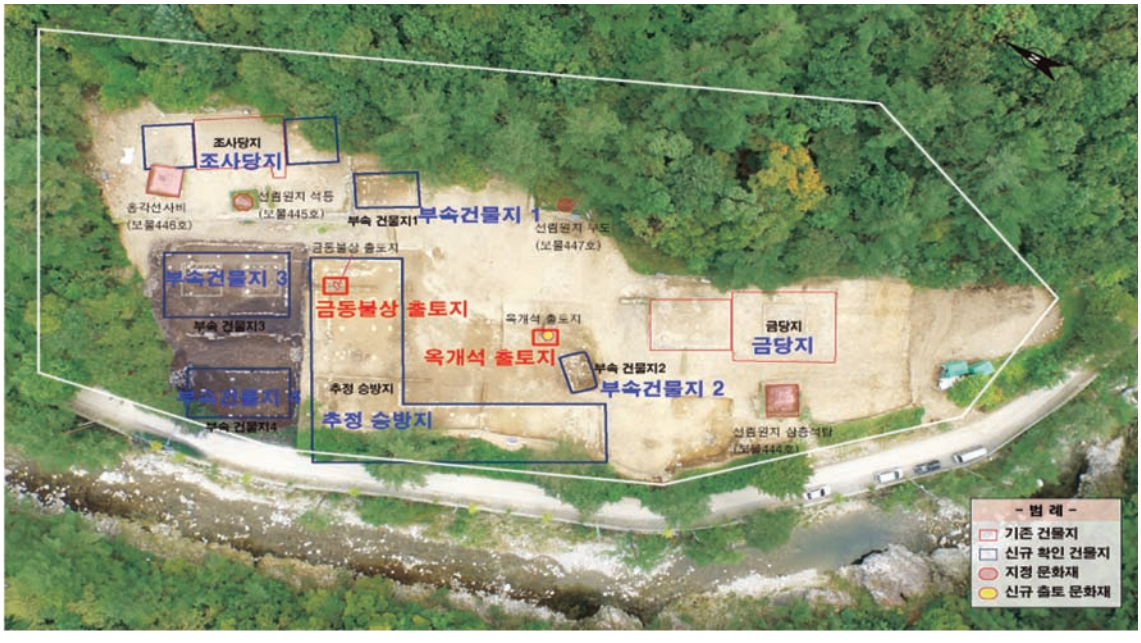
1985년도 1차 발굴 시 금동불입상(金銅佛立像)이 발견되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금동불입상/측면과 정면모습

● 한빛문화재연구원 발굴

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는 폐사지 중에서 2015년에는 홍각선사탑비 앞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한 결과 조사당지, 종각지, 승방지, 부속 건물지 등을 발굴하였다. 특히 오랫동안 찾았던 승탑의 옥개석을 발굴하였으며, 학계에서 국보로 지정될 것으로 입을 모은 금동보살입상(金銅보살立像)을 발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6년에도 나머지 사지(寺址)에 대한 발굴과 조사를 계속하여 부속 건물지 4개소와 막새기와 풍탁(風鐸) 등을 발굴 확인하였다.



선림원지 발굴조사지 현황도

선림원지 발굴조사 현장

▶ 2015년 발굴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2015년 10월 14일 선림원지(禪林院址)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보살입상과 불상을 받치는 대좌(臺座)가 발굴됐다. 이 보살입상은 출토지가 명확하고 역대 최대(最大)일 뿐만 아니라 대좌와 광배(光背, 빛을 형상화한 장식물)가 화려해 출토 당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입상은 높이 38.7㎝ · 무게 약 4.0㎏, 대좌는 높이 14.0㎝, 무게 약 3.7㎏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5년간의 보존처리로 원상을 복원하였으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7~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원 후 금동보살입상 모습 (출처: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양양 선림원지 발굴조사 현황

연번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 사 결 과		비 고
				유 물	유 구	
1	1985. 07. 23 ~ 08. 14.	동국대학교 선림원지 발굴조사단	선림원지 금당지 및 조사당지	연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 새, 연목와, 새기와, 귀면 와, 비편, 금은동불입상, 금동풍탁	금당지, 비각, 조사당지	1차발굴
2	1986. 08. 02 ~ 08. 25.	동국대학교 선림원지 발굴조사단	조사당지 종각지 승방지	연화문수막새, 연화문, 당초문암막새, 토기편, 철못, 금동손잡이장식, 쇠부싯돌	조사당지, 종각지, 승방지	2차발굴
3	2015. 07. 27 ~ 12. 15.	한빛문화재 연구원	서림리 424번지 일원 (9,096㎡)	금동장식, 금동보살입상, 금동풍탁, 청동정병, 승탑 옥개석, 막새기와, 와당, 귀면와, 철정	금당지, 승방지, 조사당지, 부속건물지 2	1차발굴
4	2016. 09. 26 ~ 11. 20.				금당지, 추정승방 지, 조사당지, 부속건물지 4	2차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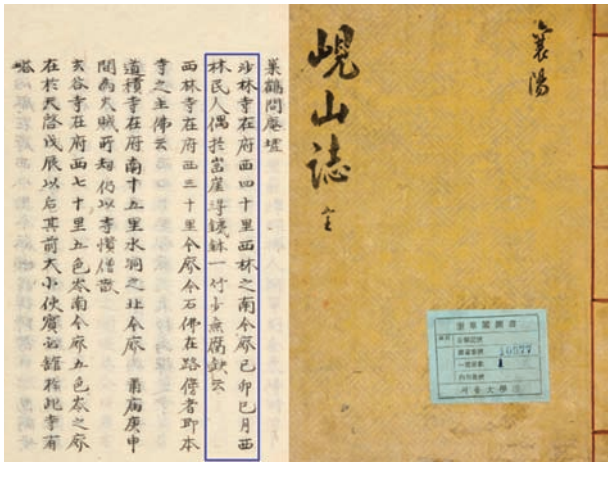
사명에 대한 고찰

선림원지(禪林院址)의 사명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찰의 명칭에 대하여 중국 당나라 때에는 사(寺)와 원(院)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사(寺)는 사찰 전체를 가리키는 어휘로, 원(院)은 사찰 내에 있는 특정한 기능의 별사(別舍) 즉 강원(講院) 등을 지칭할 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지금의 선림원지는 명칭상 문제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선림원지(禪林院址)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사림사(沙林寺)선림원으로 바로잡히길 바란다.

지난 1948년 이 절터에서 출토된 신라범종(新羅梵鐘)의 내부 명문(銘文) 중에는 해당 사찰명이 아닌 약칭(略稱)으로 '당사(當寺)' 즉 이 절로 표기하였다〔貞元卄年甲申三月卄三日當寺鐘成內之, 정원 20년 갑신(804) 3월 23일에 당사의 종이 이루어지다〕 또한 명문(銘文)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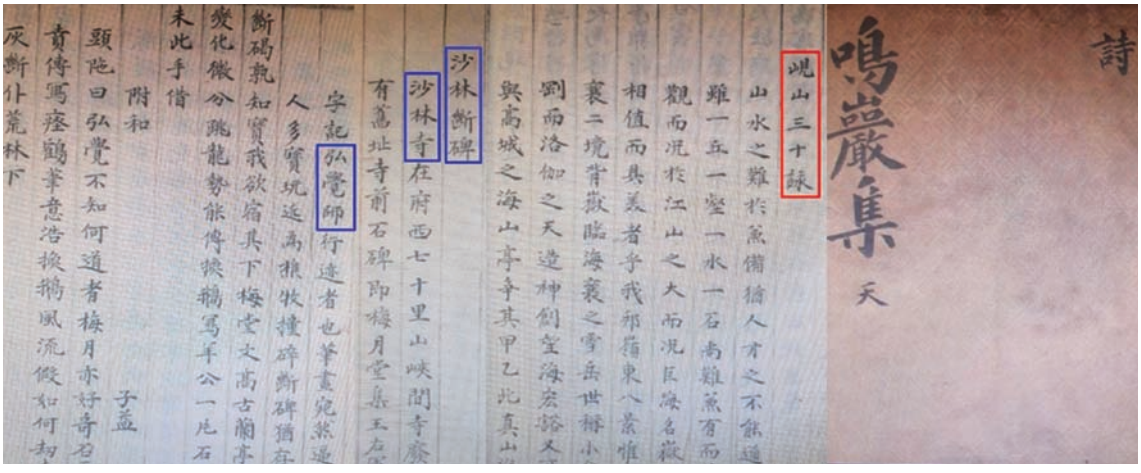
현산지 사림사 : 지금은 없어졌다. 기묘년에 주민이 낭떠러지에서 쇠사발과 대나무를 얻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에 '이 절의 옛 종 쇠 이백이십정(當寺古鍾金二百卄廷)'을 밑천 삼음이라 한 것이다.

범종의 명문(銘文)에 '당사(當寺)'라고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 절은 선림원(禪林院)이 아니라 사(寺)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홍각선사가 함통 말년(870)에 이곳 억성사(億聖寺)로 다시 들어와 머물면서 퇴락한 절의 금당과 누대를 대대적으로 중창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는 억성사였음이 확인된다.

억성사(億聖寺)는 우리나라 초기 선종사(禪宗史)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라 하대의 사찰이었다. 남종선(南宗禪)은 우리나라에 헌덕왕(809~826년)대에 처음 전래 된 후에 가지산파의 초조(初祖)인 도의선사(道義禪師)의 법을 이어받은 염거화상(廉居和尙)이 이 절에 주석하였으며, 가지산문의 실질적인 개창주(開創主)인 체징(體澄)은 억성사에서 염거로부터 심인(心印)을 전해 받았다. 또한 홍각선사 이관(利觀)은 이곳에 머물며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詩
鳴巖集
峴山三十詠
山水之難於兼備猶人才之不能
沙林斷碑
沙林寺
弘覺師

이해조 양양부사의 명암집 '현산삼십영' 사림단비의 사림사와 홍각(자료:국립중앙도서관)

그러나 이곳 사찰의 이름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여지도서 고적조에 사림사비, 관동지 고적조에 사림사비, 관동읍지 고적에 사림사비, 현산지 사찰조에 사림사라는 이름이 수록되어 있고, 양양부사를 지낸 명암 이해조(李海朝)가 1709년 재임 시 남긴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 : 양양삼십경을 읊다.)이란 시(詩)에 "사림사(沙林寺)"란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 대사헌을 지낸바 있는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관암전서(冠巖全書) 책27에 "신라 설악산 선림원 홍각선사비는 옛날 양양의 사림사에 있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억성사(億聖寺) 이후 누군가에 의해 사림사(沙林寺)로 사명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루빨리 억성사에서 언제 어떤 연유로 사림사가 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명문이나 문헌이 나타나서 이를 뒷받침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설화

● 미천골(米川谷)

선림원지는 해발 고도 1,359m인 응복산(鷹伏山) 아래에 있으며 이곳에서 발원한 물이 깊은 계곡을 형성하며 사찰 바로 앞을 지나 남대천으로 힘차게 흘러간다.

통일신라 하대의 초기 선종 사찰로 당시엔 강원(講院)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승려와 수도승들이 찾아 들었던 절이다.

성불하기 위해 찾아든 학승들을 위해 조석으로 공양미를 몇 가마씩 씻다 보니 쌀 씻은 물이 내를 이루어 후천까지 흘러들어 수색(水色)이 마치 막걸리를 뿌려놓은 듯 탁해 보였다. 이를 본 후천변(後川邊)에 사는 서림, 영덕 주민들이 쌀 미(米)자 내 천(川)자를 써서 이 골짜기 이름을 미천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속칭으로는 "쌀내골"로 불리다 "사래골"이 되었다 한다.

이를 입증 하듯이 발굴조사 결과 사지(寺址) 남서로 길이 29.2m, 북동으로 길이 25m, 너비 13m의 'ㄱ'자형인 면적 536.6㎡(162평)의 대형 승방지(僧房址)와 기타 부속 건물지 여러 동이 확인되었다.

● 폐사지 관련 설화

옛날 어느 해인가? 여름도 다 지나갈 무렵에 낮부터 천지를 분간(分揀)할 수 없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저녁때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지고 천둥에 번개까지 치며 바람까지 일기 시작했다.

회주스님이 대형 승방에 모든 스님을 모아놓고 무사하길 발원하는 불공을 드리고 있었는데, 경내에 대호(大虎) 한 마리가 나타나 마구 뛰어다니며 울어대더니 요사채 앞에 와서 문을 노려보며 더욱 거세게 울어댔다.

회주스님이 염불을 멈추게 하고는 "대호가 저렇게 날뛰니 무슨 변고일꼬? 이는 예사(例事)가 아니요, 누구를 데려가려고 저러는 것이 분명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회의 결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두의 목숨을 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연로하신 회주스님께서 "늙은 나부터 차례로 한 사람씩 밖으로 나가 봅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무릅쓰고 스님들은 차례로 모두 나갔다 왔으나 대호는 여전히 울어대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상히 여겨 인원을 점검하니 공양주보살(供養主菩薩)이 보이지 않아 찾아본즉, 승방에 딸린 공양간(供養間)에서 내일 찬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양주 보살은 손도 미처 닦지 못한 채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으로 나가니 대호가 순간 공양주보살을 덥석 물고는 장대 같은 빗줄기 속에서도 날아가듯 어둠을 가르며 앞산으로 뛰어올랐다.

순간 지진인가? 벼락인가? '번쩍, 쾅 우르르 광 쾅' 어두운 밤 산을 쪼개듯 부수듯 산천을 뒤흔드니 높은 뒷산이 절개(切開)되어 무너지니, 삽시간에 절간을 덮쳐 모두가 사찰과 함께 흙 속에 묻혀 버렸다. 다음날 비가 멎자 공양주 보살만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공양주보살은 매일 밥을 하면 산짐승과 미물(微物)도 공양할 수 있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양물을 보시(布施)하였다. 이에 산신령인 호랑이도 감읍(感泣)하여 은혜를 갚은 것이다.

'도(道)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상(日常)의 행동 하나, 하나가 도(道)'란 진리를 깨우쳐 준 것이다. 즉 자리 깔고 도를 닦는 형식에 치우침보다는 평상시 일상마다 자비 나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것이다.(平常心是道) 〈이상은 영혈사 주지 홍선(弘宣) 스님 제공〉

고승(高僧) 대덕(大德)

● 순응화상(順應和尙)

출생과 입적은 미상이다. 766년 당나라에 유학한 학승이며 802년 해인사(海印寺)의 창건주이다. 순응은 부석사의 의상을 계승하여 부석적손(浮石嫡孫)으로 일컬어진 신림(神琳)의 제자이다. 의상-상원-신림으로 이어지는 의상의 4세손에 해당한다. 따라서 낙산사와 부석사를 창건한 신라 화엄종(華嚴宗)의 초조(初祖) 의상(義湘)을 계승한 화엄종 승려이다.

중국에서 돌아와 해인사를 창건하는데, 그 과정은 전하는 기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해인사의 창건을 기록한 최치원의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新羅伽倻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에는 순응 스님이 유학에서 돌아온 뒤 애장왕의 할머니인 성목태후(聖穆太后)의 도움으로 해인사를 창건하던 중 순응이 갑자기 입적하자, 그 뒤를 이어 이정선백(利貞禪伯)이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순응화상찬」에는 그를 선재동자(善財童子)에 비유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중국에 유학하여 진리를 체득(體得)하고 귀국하여 화엄(華嚴)과 선(禪)을 익혀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사상을 지녔으며 해인사를 창건한 사실을 찬미(讚美)하고 있다.당나라 유학 시절 화엄학을 토대로 선종을 익혀 선교 융합적인 사상를 취한 순응법사는 해인사 건립 불사가 끝나기 전 억성사로 주석처(主席處)을 옮기고, 804년 3월 억성사(億聖寺)의 종(鐘) 조성에 참여한다. 이는 억성사 종의 명문에 있다.

순응화상 진영
(출처:해인사 성보박물관)

● 염거화상(廉居和尙)

염거(廉居,~844년)는 신라 후기의 선승(禪僧)이다. 염거(廉巨)라고도 하며, 가지산파(迦智山派)의 2대 조사(祖師)이다. 도의(道義,~825년)의 제자로서, 도의가 진전사(陳田寺)에서 입적할 때 의발(衣鉢)을 전수했다.

주로 설악산 억성사(億聖寺)에 머무르면서 선법을 펴는 데 힘썼고, 사교(邪敎)를 배척하였다. 항상 일심(一心)을 닦고 밝혀서 삼계(三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禪)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시대에 오직 일념무주(一念無住)만을 의지하고 지내다가, 체징(體澄)에게 법맥을 전하여 가지산파의 기반을 마련한 뒤 입적하였다.

승탑은 원래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흥법사지(興法寺址)에 있었다가, 국보 제104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이전에 발견된 지판(誌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염거화상 진영(장흥 보림사 조사전)

● 체징(體澄, 804~880년)

체징[804년(애장왕 5)~880년(헌강왕 6)]은 신라 구산선문 중 가지산파의 제

3조인 선승(禪僧)으로 유학승이다. 성은 김씨(金氏), 웅진(熊津,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 출신이며, 시호는 보조선사(普照禪師), 탑호(塔號)는 창성(彰聖)이다.

보조선사 체징 진영
(장흥 보림사 조사전)

어려서 출가하여 화산(花山) 권법사(勸法師) 밑에서 불경을 공부하였으며, 827년(흥덕왕 2) 가량협산(加良峽山) 보원사(普願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그 뒤 설산(雪山) 억성사(億聖寺)에 있는 염거(廉居)의 밑에서 일심으로 정진하여 법인(法印)을 받았다. 837년(희강왕 2) 정육(貞育) · 허회(虛懷) 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전국의 선지식(善知識)을 만났으나, 멀리서 구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고 840년(문성왕 1) 귀국하였다.

이후 많은 승속(僧俗)에게 선(禪)을 가르쳤으며, 무주(武州 : 光州)의 황학난야(黃壑蘭若)에 머무르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859년(헌안왕 3) 왕이 궁중으로 청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고, 그해 겨울에 다시 청하자 가지산 보림사(寶林寺)로 옮겼다.

860년 김언경(金彦卿 : 병부시랑)이 제자의 예를 취하고 사재(私財)를 희사하자 비로자나불을 주조하여 안치하였다.

861년(경문왕 1)에는 보림사(寶林寺)를 증축하여 많은 제자를 가르쳤다. 880년 문인들에게 임종게(臨終偈)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제자로는 8백여명이 있었다 한다.

김영(金穎)이 지은 탑비(塔碑)가 보물 제158호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로 지정되어 전라남도 장흥군 보림사 터에 남아 있다.

● 홍각선사(弘覺禪師, 814~880년)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弘覺禪師塔碑)의 비신(碑身)이 파손되어, 주인공인 홍각선사(弘覺禪師)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하지 않는다. 17세기 중엽 당시 남아 있던 비 편 일부를 탁본한 것이 『금석청완(金石淸玩)』과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수록되었다.

선사의 속성은 김(金), 이름은 이관(利觀)이요, 자는 유자(有者)이며, 814년 당시 신라의 도읍인 경주에서 출생하였다.

출가 이전에 이미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에 통달하여 한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상당한 학문적 소양과 불교적 상식을 갖추고 있었다.

관암전서의 신라홍각선사비(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830년 17세에 출가한 그는 해인사(海印寺)로 가서 선지식(善知識)을 찾았으며, 그 후 여러 선림(禪林: 선종의 사찰)과 영악(靈嶽: 신령스러운 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영암사(靈巖寺)에서 몇 달 동안 선정(禪定)을 닦았다. 그가 출가 후 해인사로 간 것은 선종(禪宗)의 고승도 출가 전에는 유학 경전을 배우고, 출가 후에는 화엄종(華嚴宗)에서 기초를 익히며, 선종으로 대성하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원감대사 현욱(圓鑑大師 玄昱, 787~868년)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와 혜목산[惠目山: 지금의 여주 고달사지(驪州 高達寺址)]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비문이 마멸되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문맥으로 보아 홍각선사가 구산선문 중 봉림산파의 개산조인 현욱을 찾아가 수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각선사가 60세 무렵인 873년경 다시 설악산 억성사(億聖寺)에 주석했다고 기록하여(원문: 咸通末復往於雪山億聖), 873년 이전의 어느 때 홍각선사가 억성사에 머무른 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840년을 전후한 시기에 억성사에는 염거화상(廉巨和尙)이 주석하고 있었으므로, 홍각선사는 염거화상의 만년에 억성사에서 그로부터 법문을 들었을 것이다. 이후 다시 억성사로 돌아온 홍각선사는 대대적인 중창을 통해 이 절을 크게 일으켰다. 홍각선사가 억성사에 주석할 당시 그의 명성이 임금에게까지 들려 그의 덕음(德音)을 흠모하던 왕의 요청에 신라 서울인 경주에 가서 궐내에서 왕에게 법문을 강설한 후 열흘을 채 머무르지 않고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홍각선사는 880년 10월 아침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불법에 힘쓰라는 유언을 남기고 입적하였다. 신라 헌강왕 12년(886)에 선림원에 탑비를 건립하였다.

성보 문화재

● 금당지(金堂址)

선림원지의 가람배치를 살펴보면 삼층석탑 뒤에 앞면 3칸, 옆면 4칸의 금당 건물이 배치되어 있었다. 현재 금당지의 주춧돌은 완전하게 남아 있으며, 오른쪽에 금당과 잇대어 또 하나의 건물지가 있다.

● 선림원지 삼층석탑(三層石塔) ⇒ 보물 제444호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보물 제444호)은 이중기단을 갖춘 삼층석탑이며, 전체 높이는 5m이다. 현재 금당터 남쪽 6.5m 되는 곳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사리구가 탈취되면서 도괴(倒壞)되어 있던 것을 1965년 해체 복원하였으며, 1966년 보물 제444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1964년 석탑을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석탑 아래에서 납석제소탑(蠟石製小塔 : 통일신라시대 조탑경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법식에 따라 석탑에 넣기 위하여 납석으로 만든 소형의 탑) 69기와 금동풍탁(金銅風鐸)이 발견되었다.

지대석은 8매의 장대석으로 짰고, 하층 기단은 괴대, 면석(面石), 갑석(甲石)이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서, 괴대는 7매, 면석은 8매의 장대석, 갑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석은 1단의 괴대 위에 놓았고, 각 면에는 우주(隅柱)와 탱주(撐柱) 1주가 정연하게 양각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물 제444호)

되고 있다. 또 갑석(甲石)은 6매의 판석으로 짜서 덮었는데, 상면에는 호형(弧形)과 각형(角形)의 2단 괨을 새겨서 상층기단 면석 을 받치고 있다.

상층기단 면석은 각 면 2개씩의 판석으로 조립하여 모두 8매로 구성하고, 각 면에는 우주와 탱주를 그리고 팔부신중(八部神衆)을 양각하고 있다. 갑옷을 입은 팔부중은 모두 구름 위에 앉아 있고, 이 무장의 측면으로 흩날리는 천의가 면을 채우고 있다. 다소 풍화가 심하기는 하나 훌륭한 작품이다.

팔부중의 배치는 남서면에 아수라(좌)와 건달바(우), 북서면에 긴나라(좌)와 마후라가(우), 북동면에 야차(좌)와 용(우), 남동면에 천(좌)과 가루라(우)의 순서이다.

이는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국보 제122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진전사지 탑 팔부중은 시계방향으로 건달바-아수라-천-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용-야차의 순인 반면 선림원지 탑은 건달바-아수라-마후라가-긴나라-용-야차-가루라-천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팔부중의 배치순서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원 시 잘못 배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상층 기단 갑석은 4매 판석으로 덮고, 하면에 각형 1단의 부연(副椽)이 있고, 상면에 각호형의 2단 괴임이 있다. 괴임의 상면에는 각 부재를 잇는 은장홈이 배치되어 있다. 갑석 동쪽 부재는 파손되어 있는데 후대에 신재(新材)를 이어 붙였던 은장홈 2개가 별도로 새겨져 있으며, 북쪽 부재 모서리에 풍탁공(風鐸孔)의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다. 상면 중앙에는 각형 2단의 괨이 있어 탑의 몸돌을 받치고 있다.

몸돌은 1, 2, 3층 모두 모서리 기둥(우주)만 새겼는데 1층 몸돌이 큼직하고 2, 3층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적절한 체감율(遞減律)을 보인다.

각층 지붕돌의 받침은 5단 층이 지게 새겼으며 전체적으로 두툼한 느낌이다. 추녀 밑은 수평이며, 지붕돌 네 모서리에는 풍경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남아 있다. 낙수면은 평평하고 얇으며, 널찍한 지붕돌의 추녀는 경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지붕돌 윗부분에는 2단 괨을 마련하여 그 위층의 몸돌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한 양식이다.

3층 지붕돌 위에는 찰주원공(擦柱圓孔)이 있고, 그 위에 노반(露盤) 과 보륜(寶輪) · 보주(寶珠)를 함께 조성한 원추형의 돌이 놓여 있다.

그리고 탑 앞에는 크기가 79×48.5×24㎝인 장방형의 배례석(排禮石)이 놓여 있는데, 위쪽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고 옆면에는 안상(眼象)이 새겨져 있다. 부처님의 영원한 몸을 모신 탑에 예배할 때는 무릎을 꿇고 이 배려석에 이마를 대서 절을 한다.

선림원지 삼층석탑은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비례가 유사하고 기단부 면석의 탱주 수, 결구 방식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므로 진전사지 삼층석탑을 모본으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 선림원지 석등(石燈) ⇒ 보물 제445호

석등은 높이가 2.95m이고 보물 제445호로 지정하고 있다.

1965년 조사 당시 무너진 부재가 석축 아래까지 굴러 떨어져 흩어져 있던 것을 북서쪽 끝부분에 길이 32m, 너비 15m의 석축을 쌓아 조성한 평탄지 위에 복원하였다.

일반적으로 석등은 불을 켜두는 곳인 화사석(火舍石)를 중심으로 아래에는 이를 받치기 위한 3단의 받침돌을 쌓고, 위로는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는다. 이 석등은 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8각 형식을 따르면서도 받침돌의 구성만은 매우 독특하여 눈길을 끈다.

선림원지 석등 (보물 제445호)

아래 받침돌의 귀 꽃 조각은 앙증맞게 돌출되어 아름답고, 그 위로 가운데 받침돌을 기둥처럼 세운 것이 마치 서 있는 장고와 같은 모양이며 그 장식이 화려하다. 기둥의 양 끝에는 구름무늬 띠를 두르고 홀쭉한 가운데에는 두 줄의 원권문(圓圈紋)을 두르고 총 8개의 꽃송이를 조각하여 마디를 둔 후, 이 마디 위아래로 대칭되는 연꽃 조각의 띠를 둘러 모두 3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화사석은 8각으로 빛이 새어 나오도록 4개의 창을 뚫었고, 각 면의 아래에는 작은 공간에 무늬를 새긴 매우 드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지붕돌은 8각의 모서리 선이 뚜렷하며, 추녀에는 아래 받침돌에서 본 것과 같은 모양의 귀 꽃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 경사진 면은 가파르지 않고 부드러운데, 귀 꽃 조각과의 어우러짐이 자연스럽다. 꼭대기에는 연꽃이 새겨진 머리 장식의 작은 받침돌만 남아 있다.

지붕돌이 일부 없어졌으나 완전하게 남아 있으며, 전체적인 양식과 장식적으로 흐른 조각 등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인 담양 개선사지 석등과 거의 같은 모습일 것이다. 같은 절터 내의 홍각선사탑비와 함께 신라 정강왕 원년(886)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한다.

●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弘覺禪師塔碑) ⇒ 보물 446호

거북 모양을 한 비석의 받침돌인 귀부(龜趺)와 용이 어우러진 모양의 비석 머릿돌인 이수(螭首)만 남아 있고 비신은 파괴된 홍각선사탑비는 비문을 통해 신라 헌강왕 12년(886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탑비로 1966년 9월 21일 보물 제446호로 지정되어 있다.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보물 제446호)

비석의 하단부인 귀부의 높이는 73cm, 이수의 높이는 54cm로 비신은 대부분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귀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거북 형상을 받치고 있는 지대석은 모서리를 곡면 처리하였으며, 귀부의 육각 거북등무늬는 뚜렷하게 새겨져 있고 정수리 부분에 흠이 있어 용의 뿔을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거북의 발가락은 각각 4개씩이고 꼬리는 오른쪽으로 18도 돌아 위쪽으로 향하다 약간 오른쪽으로 꺾여있다. 하부에는 파도 무늬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비신 받침에는 안상(眼狀, 눈처럼 생긴 모양)을 앞면에는 2개, 뒷면에는 3개, 좌우 측면에는 1개씩 배치하였고 아래에는 구름무늬를 위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다.

탑신부는 원래 없었으나 2008년에 그동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신을 복원하였다. 가장 많은 비문을 탁본한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를 기본으로 하여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탁본 자료와 『금석청완(金石淸玩)』 등의 비첩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전체 비문은 雲澈(운철) 스님이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새겼다 하는데, 1,340자 정도로 추정되는 비문 중 현재까지 약 710자를 확인하여 비문에 복원하였다고 한다.

발굴된 비편의 연구를 통해 추정한 비문에 따라서 가로 32행, 세로 48자, 글씨는 2cm 정도의 행서로 비문을 음각하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비명(碑銘), 비문 찬술(撰述), 관련자, 홍각선사의 생애, 선사 사후(死後) 비석 건립 경위, 관련 인물, 건비(建碑) 시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석의 크기는 너비 94.5㎝, 높이 173.5㎝, 두께 19㎝이다.

이수(螭首) 받침에 연 꽃무늬를 새겼으며 비(碑)의 머리 각 면에는 4마리의 용이 구름 속에 뒤엉켜 있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고, 이수의 전면 중앙에 사각형의 제액을 만들고 그 안에 '홍각선사비명'이라는 글씨를 새겼는데 해서에 가까운 전서체이다. 홍각선사가 880년에 입적하자 왕명에 정강왕 1년(886) '병오 10월 9일'에 탑비는 세우다 기록되어 있다.

● 선림원지 승탑(僧塔) ⇒ 보물 제447호

남북국(통일신라)시대 승탑(보물 제447호)으로 현재 기단부만 남아 있고 높이는 1.22m이다. 억성사를 초기의 선종 사찰로 크게 중수하여 일으켜 세운 홍각선사의 승탑으로 중대석에 용무늬를 새기기 시작한 최초 승탑으로 추정한다.

일제강점기에 도굴이 자행되어 내부의 봉안물이 도난당하였고, 파손되고 무너진 채 부재들이 사역 내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65년 11월에 각 부재를 수습하여 현재의 자리에 복원하고, 현재 보물 제4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위치는 금당지 북동쪽의 뒷산 중턱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50m쯤 위의 산 중턱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추정지에는 6.1×6.2m 규모의 작은 평탄지가 있으며, 평탄지 앞쪽에는 석축의 흔적이 있다.

선림원지 승탑 (보물 제447호) 사진 우측하단에
2016년 발굴 당시 출토된 승탑 옥개석.

승탑의 형식은 지대석 위에 상.중.하대의 기단부를 형성하고 그 위에 탑의 몸돌[탑신석(塔身石)]과 지붕돌[옥개석(屋蓋石)] 상륜부를 올려놓았던 것이지만 기단부만 남아 있던 것을 2016년 옥개석이 발굴되어 탑신석만 없는 상태이다.

승탑을 아래에서부터 살펴보면, 사각의 지대석은 땅 위로 노출되는 부 분만 다듬고 그 밑은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 그대로 두었으며, 크기는 152.5×152.5㎝이다.

하대석 하단의 팔각형 괴돌은 지대석과 하나의 돌로 조성한 2매의 부재가 결합 되어 있고, 높이 16㎝, 너비 121㎝이며 한 면의 너비는 50㎝이다.

중대석은 높직하고 둥글게 생긴 기둥형으로 표면에는 용이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거의 원각에 가까울 정도로 깊게 양각한 강한 용머리와 부리부리한 눈, 큼직한 입과 코, 유려한 수염이 생동감을 더해 주고 있다. 전신을 감싸고 있는 비늘은 생동적인 용머리와 어울리고 꿈틀거리는 몸 주위에는 굵게 조각한 구름 문양이 조화를 이루어 금방이라도 승천할 것 같다. 현존하는 기단부의 모습으로 볼 때 남아 있지 않은 탑의 몸돌과 상륜부가 얼마나 화려했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만일 원형을 갖추고 있다면 보물 중의 보물임이 틀림없다.

2016년 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할 때 승탑 원형 추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승탑 옥개석을 발굴하여 현재 양양 오

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 임시 보관 중이다. 옥개석은 팔각이며 높이 26㎝, 너비 95㎝이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석등 옥개석에 비해 평범한 형태이며 굴곡이 다소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옥개석의 각 모서리에는 귀 꽃이 장식되어 있는데, 각 귀 꽃마다 중앙에 가릉빈가 (迦陵頻伽,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한 상상의 새)를 새기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옥개석 하면에는 팔각 3단 받침이 있고, 상면에는 각호 각형 3단의 괴임이 있다. 상면 중앙은 다소 거칠게 다듬어져 있다.

팔각의 옥개석을 근거로 탑신석 역시 팔각인 팔각원당형 승탑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홍각선사탑비와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에 따라서 제작 시기는 886년 무렵으로 추정한다.

● 선림원지 출토(出土) 신라범종(新羅梵鐘)

804년, 신라 애장왕 5년에 제작된 선림원지 동종은 이후 1948년 10월 강릉군 신서면 미천리, 지금의 양양군 서면 황이리 선림원지에서 숯 굽는 화부(火夫)들에 의해 동종이 발견되었다.

땅속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출토되어 오대산 월정사에 보내졌다. 1950년 월정사 칠불보전 앞에 매달아 사진 촬영을 비롯한 탁본, 실측 조사 등이 이뤄졌다.

이 동종은 총 높이 122㎝, 종 높이 96㎝, 입지름 68㎝ 크기로 출토 당시 철제 현가(懸架)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당시는 소형의 동종은 현가(懸架)를 설치하여 매달기도 하였다.

사진 좌측 : 1949년 출토지인 선림원지에서 월정사로 옮겨진 당시의 동종모습.
사진 중앙과 우측 : 6 · 25 한국전쟁당시 훼손된 동종 외부와 내부 명문 모습.

동종의 내부의 명문(銘文) 중에는 이두(吏讀), 인명(人名), 관직(官職), 지명(地名) 등의 기록(記錄)이 있어 신라 말기(末期)의 귀중(貴重)한 자료(資料)이다. 그리고 주종(鑄鐘) 연대와 승려, 시주자 등 주성(鑄成)에 관계한 인물들을 알려 주는 매우 귀중한 종이다.

출토될 때 종을 거는 철제현삭(鐵製懸索)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선림원지 종뿐이어서, 귀중한 국보급 범종이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월정사 칠불보전(七佛寶殿)이 전소되면서 함께 불에 타 파종(破鐘)되었다. 조성 내력과 연대를 새긴 이 종은 통일신라 범종 중 8세기 후반과 9세기를 잇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 화려한 문양과 완벽한 주조기법을 자랑한다.

사림사 선림원지 (寺林寺 禪林院址)

선림원지 종은 오대산 상원사동종, 성덕대왕 신종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빼어난 유물 중 하나이다. 이 종은 현재 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복원된 종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 범종의 명문(銘文)으로 본 역사

"貞元卄年甲申三月卄三日當寺鐘成內之 / 古尸山郡仁近大 紫草里施賜乎古鐘 / 金二百八十廷當寺古鐘金二百卄廷此以 / 本爲內十方旦越勸爲成內在之 / 願旨是者法界有情皆佛道中到內去誓內/ 時寺聞賜主信寅夫人君 上坐 令妙寺 日照和上 / 時司 元恩師○ / 鐘成在伯士 當寺 覺智○ /上和上 順應和上 / 良惠師 / 平法師 / 善覺師 / 如住○師 / 牛誓師 / 宜司 ○覺師 / 節唯乃 同說師

정원이십년갑신삼월이십삼일당사종성내지 / 고시산군인근대 자초리시사호고종 / 금이백팔십정당사고종금이백이십정 차이 / 본위내십방단월권위성내재지 / 원지시자법계유정개불도중도내거서내/ 시사문사주신인부인군 상좌 영묘사 일조화상 / 시사 원은사○ / 종성재백사 당사 각지○ / 상화상 순응화상 / 양혜사 / 평법사 / 선각사 / 여주○사 / 우서사 / 의사○각사 / 절유내 동설사

정원 20년 애장왕(哀莊王) 5년인 갑신(804) 3월 23일에 당사의 종이 이루어지다. 고시산군의 대마말의 직분을 가진 인근과 자초리가 시납하신 옛종의 쇠 280정과 당사의 옛 종의 쇠 220정, 이것으로 밑천을 삼고 십방의 단월(시주자)들이 노력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법계의 유정이 모두 다 불도에 도달하기를 서원한 때에 절에서 듣고 하사하신 분은 신인부인이다.
상좌는 영묘사의 일조화상, 당시 감독은 원은스님, 종을 만든 박사는 당사의 각지스님, 상화상(우두머리 스님)은 순응화상, 양혜스님, 평법스님, 선각스님, 여주○스님, 우서스님, 의사(업무총괄) ○각스님, 당시의 유나[維那:재의(齋儀)를 지휘]는 동설스님

연혁(沿革)

연대	주 요 사 항
802년	화엄종 순응화상(順應和尙)이 주석처를 옮김. 해인사를 창건함
804년	상화상(上和上) 순응화상(順應和尙)이 '당사(當寺) 종' 을 주종함
~ 844년	절 이름은 억성사. 가지산문 2조 염거화상이 주석. 가지산문 3조 체징이 10년 염거(廉居)의 제자로 법인(法印)을 받음. 염거 844년 입적(入寂)
870 ~ 880년	억성사. 선종승 홍각선사가 주석. 중창하고 법문과 덕음을 흠모한 선승의 도량으로 법향이 피어남. 880년 입적
886년	억성사 홍각선사 비를 세움
고려전기	수해로 인한 산사태로 일시에 매몰되면서 폐사 추정
조선후기	선림원지 또는 사림사지(沙林寺址)라 불리었음.

연대	주 요 사 항
1914년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의 일부가 경복궁 근정전에 진열됨
일제강점기	사림사지라 불리었음. 석탑, 승탑, 석등, 귀부 등이 도굴로 경작지에 무너진 상태로 있었음.
1948년	억성사 종이 억성사 사역내에서 발견되어 1949년 월정사로 옮겨짐
1950년	6 · 25한국전쟁 시 소실(燒失)되어 현재는 잔편만 남게 되었음
1964년	석조유물 석탑, 승탑, 석등, 귀부 문화재로 지정하고, 도괴되어 있던 석탑, 승탑, 석등을 복원하여 '선림원지' 라는 명칭으로 지정함
1966년	삼층석탑, 홍각선사탑비, 석등, 홍각선사탑비, 승탑(부도)보물로 지정
1982년	사지는 강원도 기념물 제53호로 지정
1985 ~ 1986년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 발굴. 금당지와 조사당지 등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금동여래입상, 금동풍탁, 용면와, 막새기와, 와당, 금동장식, 철정, 금당지, 비각, 조사당지, 종각지, 승방지가 조사됨.
2008년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가 복원됨.
2015 ~2016년	금동장식, 금동보살입상, 금동풍탁, 청동정병, 승탑옥개석, 막새기와, 와당, 귀면와, 철정, 금당지, 추정 승방지, 조사당지, 부속건물지 4개소가 조사됨.

서림사지
(西林寺址)

■ 위치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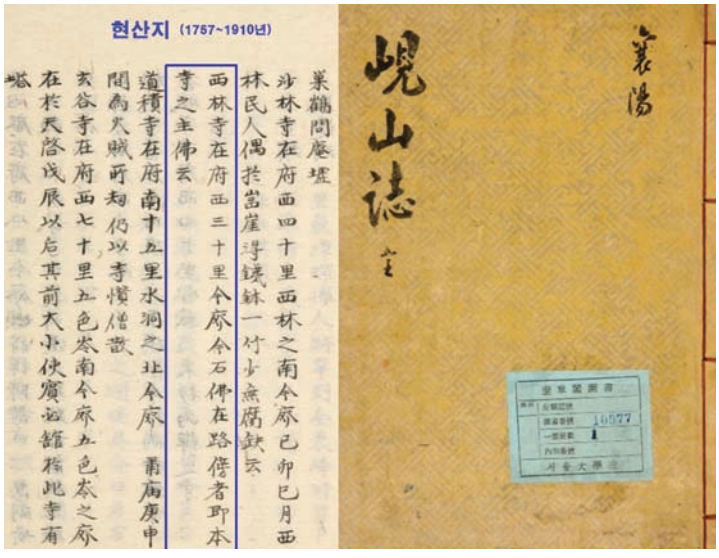
서림사지(西林寺址)는 선림원지(禪林院址)로 가는 길목인 양양군 서면 서림리 108번지 일원에 있었던 사찰로 마을 이름도 서림사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본래 사지는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으로 현재는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서림사지 위치도

사지에서 출토된 서림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삼층석탑은 분교 교정인 서면 구룡령로 2115에 옮겨 놓았다. 비로자나불과 함께 출토된 기와 편으로 미루어 신라하대(9세기 중엽)의 절로 추정된다.

삼층석탑은 고려 시대 양식이며 산재한 기와와 청자, 백자편들로 보아 조선 시대까지 사찰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문헌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현산지(現山誌)에는 폐사 이후의 기록만 전한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시대 전기까지 사찰의 면모를 유지하다가 16세기 말인 임진왜란(1592~1598년)으로 소실(消失)된 뒤 다시 중창(重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현산지의 서림사:부(府) 서쪽 30리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지금도 석불(石佛)이 길옆에 있는데, 이것은 원래 서림사의 주불(主佛)이라 이른다.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성보문화재

● 서림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1996. 9. 30일 지정)

양양서림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襄陽西林寺址石造毘盧遮那佛坐像)은 현재 서면 서림리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교정에 3층 석탑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1965년 서림리 108번지에서 발견되어 옮겨 놓은 것이다.

불상의 머리는 없어졌고 몸도 손상이 많은 상태로 임진왜란 때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를 감싼 형태의 지권인(智拳印)으로 법신인 비로자나불상(毘盧遮那佛像)이다.

8각형의 대좌(臺座)는 결실된 부분이 있지만, 조각 솜씨가 매우 우수하다. 밑받침돌 위에 4매의 석재로 구성된 하대석을 올려놓았는데, 각 면마다 1구씩의 사자를 양각하였다. 8각 중대석은 각 모서리에 기둥 모양을 새기고 그사이에 1구의 향로와 7구의 보살상을 배치하였다.

중대석 위에는 별도로 8각의 딴 돌을 놓았는데 이것은 원래 중대석 받침돌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별도로 중대석 받침을 만든 예는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과

서림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청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24호)처럼 9세기 중엽의 대좌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 양양서림사지삼층석탑(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호 1996. 9. 30일 지정)

서림사지 삼층석탑

양양서림사지삼층석탑 (襄陽西林寺址三層石塔)은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교정에 서 있는 탑으로, 출토지는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서림리 108번지로 1965년 서림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강원도문화재자료 제119호)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탑은 1층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이다. 기단과 탑신의 1·2층 몸돌 모서리에는 기둥 모양을 새겨 놓았다. 급한 경사가 흐르는 지붕돌은 둔하고 무거워 보이는데, 네 귀퉁이가 경쾌하게 들려있어 묵직한 느낌을 덜어주고 있으며, 밑면 1·2층은 4단, 3층은 3단의 받침을 두었다.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네모난 노반(露盤)이 3층 지붕돌과 한돌로 조각되어 있다.

몸돌의 너비가 좁고 두툼한 지붕돌이 급경사로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늘고 길어 보이고 안정감이 적다. 기단과 지붕돌의 모습으로 보아, 고려 시대 후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 앞으로의 과제

서림사는 9세기 중반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신라하대로 추정되는 사찰이다. 사찰 터에서 불상과 3층석탑이 발굴되는 것을 보면 사찰 규모가 작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절터가 논으로 경작되는 만큼 하루빨리 학술적 발굴로 소중한 문화재를 수습했으면 한다.

특히 "불상의 주변에는 기둥과 주춧돌이 일렬로 늘어서 있어 보존이 양호하였으며, 약사여래 입상도 1구가 발견되어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우리 군 출토 문화재의 세밀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개운사지
(開雲寺址)

■ 창건 및 위치

개운사지(開雲寺址)는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647번지 일원이다. 이곳에 오르기 전인 625번지에는 석종형승탑(石鐘型僧塔) 2기가 큰 바위 옆에 있다. 이곳으로부터 10~15분 더 오르면 647번지가 나오는데 이곳이 절터이다.

개운사지 위치도

개운사지 (開雲寺址)

개운사에 대하여는 영조 때인 1757년~1765년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모아 성책한 전국 지방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 사찰조(寺刹條)에 처음 나타난다. 그 내용은 부(府)의 남쪽 60리 오대산(五臺山) 동쪽 산기슭 아래에 있고 법당(法堂) 3칸, 요사(僚舍), 선방(禪房) 등 10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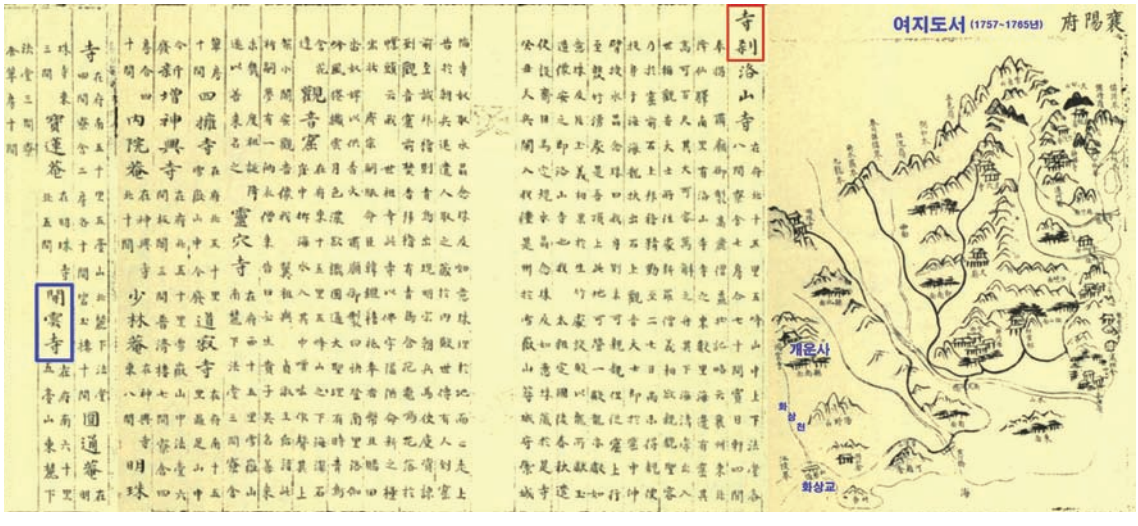
현산지(峴山誌) 사찰조(寺刹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개운사는 부(府) 남쪽 70리 만월산(滿月山)의 동쪽 묘각동(妙覺洞)에 있다. 희랑조사(喜郎祖師)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연대는 알 수가 없다.

영조(英祖) 2년(1738)에 월천(月川) 위쪽에 옮겨서 지었다. 영조 25년(1749)에 화재를 입었고 영조 26년(1750)에 정례봉(頂禮峰)의 서쪽에 옮겨지었다. 정조 10년(1786)에 화재를 입었고 순조 18년(1818)에 월천 위쪽에 다시 지었다.

현산지(峴山誌)는 양양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지방지로 원본은 영조(英祖) 33년(1757)에 처음 편찬되었으며 이후 정조(正祖), 순조(純祖), 고종(高宗) 대를 거치면서 증보되었고, 1910년대 초반까지 편찬되었다.

다른 기록으로는 범우고(梵宇攷)와 관동지(關東誌)에도 기록이 나오며 해동지도(海東地圖)와 여지도서에도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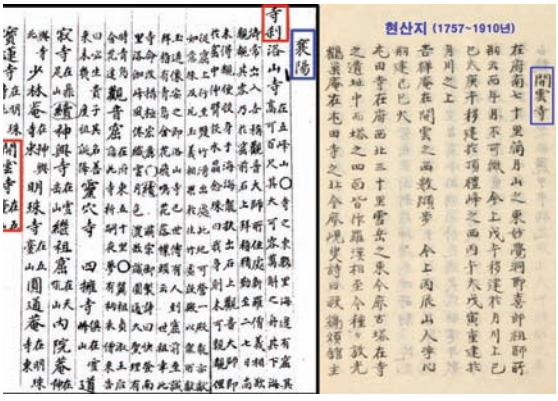
폐사와 관련하여서는 1871년에 편찬한 관동읍지(關東邑誌) 양양부 사찰조에 개운사 금폐(今廢 : 지금은 폐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관동지(1829~1831년)가 편찬된 이후와 관동읍지가 편찬되기 전인 1831~1871년 사이인 19세기 중반에 폐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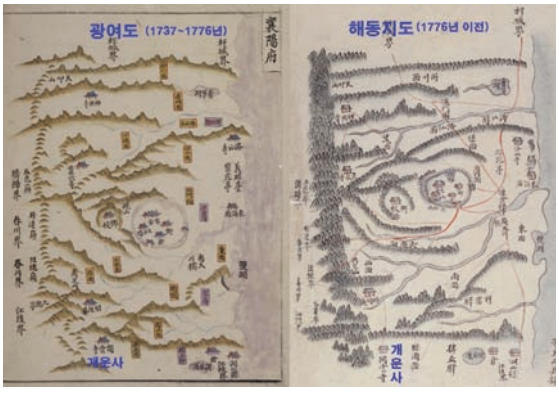
여지도서의 개운사:지도상에 개운사와 화상교가 표기되어있다(자료: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착오(錯誤)적인 기록

일제에 의해 1942년에 출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현남면 하월천리 절터를 개흥사지(開興寺址)라 오기(誤記)하고 부도2기, 초석, 기와 편이 산재해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개운사지(開雲寺址)가 바른 표기임을 밝힌다.



범우고와 현산지의 개운사



개운사 고지도

■ 성보문화재

● 부도 2기

개운사 절터 입구에서 우측으로 큰 바위가 있고 그 옆에 석종형(石鐘型) 부도 2기가 있다. 2기 모두 탑신부에 문양이나 장식이 없고 상륜부 복련좌(覆蓮座)에 반구형 연봉이다. 당호는 세로로 음각되어 있다.

학성당(鶴城堂) 부도는 104cm 높이에 지름이 74cm이다. 월성당(月城堂)의 부도는 114cm 높이에 지름은 74cm이다. 이와 관련한 특별한 기록은 없다.

개운사지 학성당과 월성당 부도

● 개운사지 유물

수습된 기와로는 민무늬, 어골문(魚骨紋), 집선문(集線紋), 수파문(水波汶)이 있는데 어골문과 집선문은 고려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

● 설영당(雪影堂) 암각문(巖刻文)

부도 위치에서 길을 따라 5분 정도 오르다 보면 물가를 기준으로 좌측에 가로 약4m 세로 2.5m의 바위에 세로로 암각한 글이 있는데 글씨 규격은 글자 당 가로 20cm, 세로 19cm이다.

암각문 내용은 "청허구대청월문인설영당사준사리봉영(淸虛九代淸月門人雪影堂思峻舍利奉影)"으로 "청허(서산대사)로 부

개운사지에서 수습된 기와편

터 9대 손제자(孫弟子)인 청월 설영당 사준의 사리를 봉안한다."는 뜻이다.

■ 앞으로의 과제

개운사는 절터를 3차례 정도 옮겼으며 부도가 위치한 사지(寺地)도 최종 위치인지는 발굴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양양문화원에서 1995년 발간된 양양의 땅이름에서도 300쪽에서 "윗 절골에 절을 지어서 번창하였는데 하월천리에서 어성전리로 통하는 울력 등으로 이사하여 현(現) 명주사(明珠寺)를 창건하였다"라는 기록에 대하여도 명주사와의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

창건 연대와 관련하여서도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의 진각국사(眞覺國師) 천희(千熙 1307~1382년)의 비음기(碑陰記)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문도가 개운사 주지로 임명되어 있어" 라는 기록의 개운사가 양양의 개운사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천희가 낙산사에 머무른 적이 있어 개운사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며, 한국사찰사전(韓國寺刹辭典)에는 양양의 개운사가 유일하여 개운사는 고려 천희 이전에 창건된 사찰일 가능성이 짙다.

수습된 와편(瓦片)도 여말(麗末) 선초(鮮初) 인데다 이곳은 첫 번째 절터도 아니며, 더구나 명주사 창건과 관련이 있다면 더욱 고려 시대 창건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개운사지 설영당 암각문

도적사지
(道寂寺址)

■ 도적사지의 위치와 현황

도적사지(道寂寺址)는 오대산과 이어진 정족산(鼎足山)의 주맥인 절골에 있는데 주소는 양양군 서면 수리 628-3번지이다.

절터 동쪽은 다락 논으로 활용되고 있고, 서북쪽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 잡목들이 자라고 있으며, 북쪽 능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좌우로 2개의 묘지가 있다.

조선 말기까지 묘지자리에 작은 법당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 주위에 많은 기와조각과 건축부재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와 자기조각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로 볼 때 도적사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찰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불상을 반출하였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없다. 절터 북쪽에 있는 묘지를 조성할 때 둥근 맷돌, 기와 조각과 불에 탄 흙 등이 출토되었다는데 둥근 맷돌도 외부로 반출되어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도적사지 위성사진과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도적사

도적사지 석축 흔적과 다듬어진 돌

도적사지 옛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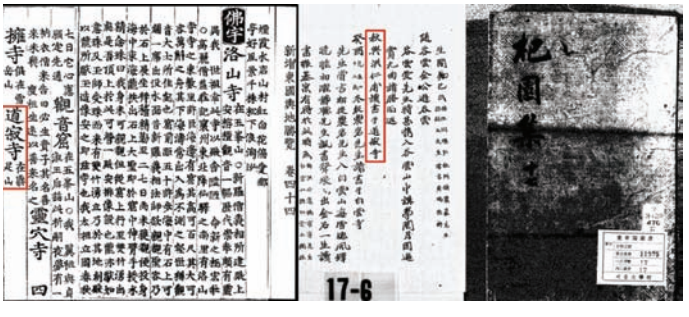
■ 도적사의 연혁

현재 도적사 창건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기록은 없지만 절터에서 발견된 청석탑 및 와편 등 유물을 토대로 추정해 볼 때 불교가 크게 성행했던 고려 시대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몇몇 문헌들에 도적사의 위치와 존폐 여부를 알려주는 기록이 전해진다. 조선시대의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에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동지지에 18세기 중엽에 폐사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하지만 1799년에 편찬된 범우고에는 18세기 말에도 도적사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어 정확한 폐사 연대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들 기록 이외에도 여지도서(輿地圖書 : 영조 33년 1757)에 도적사가 정족산 자락에 있었는데 폐사되었다는 기록과, 현산지(峴山誌 : 1757~1899년)에는 부 남쪽 15리 수동(水洞)의 북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하면서 숙종 16년(1690) 경신에 "화적(火賊)에 의해 겁탈당한 바가 있어 중들이 모두 슬퍼하여 흩어졌다(爲火賊所劫仍以寺憤僧散/위화적소겁잉

현산지 문헌기록과 범우고의 도적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기원집 기원선생연보(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사분승산)"라고 적혀있다.

조선 전기(중종 25년, 1530)의 대표적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도적사가 오대산에서 이어오는 정족산(鼎足山) 주맥에 있으며, 정족산은 양양도호부에서 서남쪽으로 40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기원집(杞園集)의 '기원선생연보'에 어유봉(魚有鳳 : 1672~1744년)이 1692년 가을에 처남인 홍유인[洪有人 자:홍인보(字:洪仁甫) / 1667~1694년]과 함께 도적사에서 글을 읽었다는 기록 [추여홍인보독서우도적사/秋與洪仁甫讀書于道寂寺]도 있다.

■ 도적사지 유물과 유적

1. 석조유물(石造遺物)

도적사의 연혁(沿革)을 알려주는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고려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석탑재(靑石塔材)를 비롯하여 육각형 대석(臺石), 옥개석(屋蓋石), 디딜방아 확석 등을 양양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다.

가. 청석탑(靑石塔)

청석탑의 탑신과 옥개석은 같은 재질의 돌로 다듬어진 것인데 총 3석을 수습하였다. 이 중 중소형 2석은 1992년에 양양문화원에 기증된 것이고, 대형 1석은 2012년 12월에 양양문화원에서 옮겨 놓았다.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옥개석 일부와 탑신 2면이 남아 있어 몇 층에 활용되었던 부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석의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달라 상하층은 구별할 수 있어 편의상 하층 1석, 중층 1석, 상층 1석으로 호칭한다.

청석탑 부재와 상 · 중 · 하층의 범자 탑영

하층석(下層石) 탑신의 면석(面石) 한가운데는 1조의 원형 음각선(陰刻線)이 있는데 그 안에 범자(梵字) 진언(眞言)을 새겨 놓았다.

중층석(中層石)은 반만 남아 있지만 다른 층에 비하여 상태가 양호하여 세부적인 돌다듬기 기법을 볼 수 있다. 탑신은 좌우에 우주(隅柱)를 새겼으며, 면석 한가운데 1조의 음각선으로 원형문을 마련하고 범자를 새겨 넣었다. 옥개석 처마부는 수평을 이루고 있다. 낙수면(落水面)의 경사가 완만하고, 합각부는 치켜 올려 마루부를 표현했는데 합각부 끝에 풍탁(風鐸)을 달았던 구멍이 있다.

상층석(上層石)은 남아 있는 부재들 중에 파손이 가장 심하다. 면석부 한가운데 1조의 음각선으로 원형문을 마련하고 범자를 음각했다.

3석(三石) 모두 가운데에 찰주공(擦柱孔)이 반만 남아 있다. 규모가 작고 높이가 낮아 붕괴나 도괴(倒壞) 위험이 있어 한가운데에 굵은 찰주공을 세워 청석탑을 견고하게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탑신석에 새겨진 범자 중 하층석은 진언(眞言)으로 확인되나 상층석은 범자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일부가 없어진 부분이 있어 확실하지 않다. 중층석은 2면만 남아 있어 다른 면에는 어떤 범자가 새겨졌는지 알 수 없어 종자(種字)인지, 진언인지, 아니면 다라니경(陀羅尼經)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육각형 대석(臺石)과 옥개석(屋蓋石)

도적사지에서 출토된 부도탑 부재 및 확석

육각형 대석은 사리구 등을 봉안했던 것으로 높이 17cm, 가운데 원공 지름 25cm, 한 변의 길이가 43cm로 반파된 상태이다. 상부에 2단 괴임단이 있고 모서리에는 돋을새김이 있다.

높이 36cm, 한 변의 길이가 44cm의 평면 육각형으로 된 옥개석(屋蓋石)과 상부에 올려진 보주(寶珠)가 같은 재질이다.

육각형 대석과 옥개석은 표면이 정연하게 다듬어졌으며 세부적인 표현 기법으로 보아 우수한 장인이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두 조형물은 평면이 육각형으로 동일(同一)하며 석질(石質)도 같아서 하나의 부도탑에 활용되었던 부재로 보인다.

대석에 마련된 괴임단과 상면 중앙에 원형 홈이 있는 점, 옥개석 하부에 별다른 치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朝鮮後期) 건립된 부도(浮屠)로 추정된다.

다. 확석

디딜방아의 확석일 가능성이 높다. 확석의 규격은 84cm x 53cm x 51cm, 원공 지름 27cm, 깊이 24cm로 원공이 깊어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2. 기와와 자기 조각

복합문 수기와 외면과 내면

도적사지 지표에는 많은 기와 조각이 산재해 있으며 경작지 논, 밭둑에서도 보이지만 경작지와 산이 맞닿은 경계 지점과 묘지 주변에는 기와뿐만 아니라 자기 조각들도 산재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여러 동의 당우(堂宇)가 있었던 넓은 절터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경작지 주변에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기와(平瓦) 조각들이 산재해 있으며 묘지 주변에서 발견된 기와는 제작기법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명문이 새겨진 기와 2종이 수습되었는데 경작지 동쪽 낮은 구릉에서는 표면에 '口貢'으로 "공"자 한 글자만 판독이 된다.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명문의 평기와는 사지 북쪽에서 수습되었으며 '口寺'로 역시 "사"자 한 글자만 판독되는데 조선시대 절 이름이 새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면 고려시대에는 논이 있는 경작지가 중심절터로 보이며, 조선 후기에 사찰규모가 축소되면서 절터 뒤편의

구릉지대에 작은 규모의 법당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조각은 절터 중심지 수로주변에 흩어져 있는데 대부분 분청사기와 백자로 조선시대에도 사찰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 앞으로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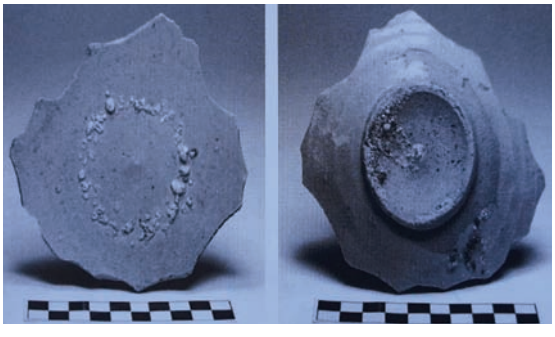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조선시대의 기록과 사지에 남아있는 유물로 보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적사지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조선 말기에는 작은 규모의 법당이 다시 건립되어 명맥을 잇다가 일제 강점기에 폐사되면서 불상 등이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도적사지 청석탑재는 파손이 심하기는 하지만 작은 규모의 전형적인 고려시대 청석탑 양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청석탑에서는 보기 드문 종자(種字)와 진언(眞言)이 함께 새겨져 있어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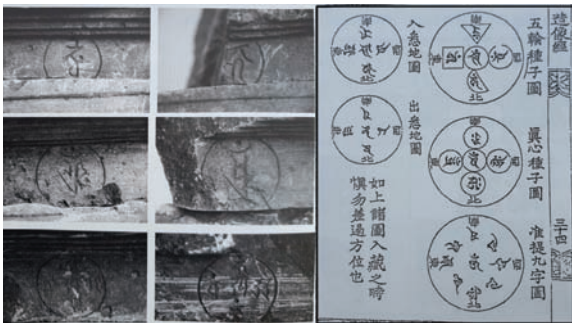
고려시대 성행한 청석탑이 영동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되었고, 당대의 불교문화 양상을 새롭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각자(刻字) 된 하층은 1824년 간행된 유점사 본 "造像經(조상경)"의 내용으로 보아 보신진언[報身眞言, 입실지(入悉地)]이나 법신진언[法身眞言, 오륜종자(五輪種子)]에 해당된다.

명문기와에 새겨진 '賈'字(상) '寺'字(하) 탑영

지금도 절터 곳곳에 기와조각과 자기조각 등이 산재(散在)해 있어 망실(忘失)되거나 외부로 반출될까 우려된다. 또한 땅속에는 다양한 유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바 도적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유물에 대한 보존과 활용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적사를 학술적으로 고증하여 양양뿐만이 아니라 영동지방의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도적사의 가치를 조명할 필요가 크다 하겠다.



백자 접시편 내면과 받침부



청석탑 상·중·하의 조상경(造像經) 오륜종자도(五輪種子圖)

Ⅱ

근·현대사찰

(近·現代寺刹)

죽도암
(竹島庵)

■ 창건 및 연혁

죽도암(竹島庵)은 양양군 현남면 새나루길 26(현남면 인구리 1-72)에 위치한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의 작은 암자이다. 관음전(觀音殿)과 요사채 그리고 3층 석탑, 해수관음보살상이 있다.

1927년 3월에 비구(比丘)김덕삼에 의해 죽도(竹島) 북쪽에 창건된 사찰로 감로수 병을 품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觀音殿)은 암벽 위에 자리하였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관음보살 좌측의 칠성단은 전 주지인 도경(道鏡) 스님 때 칠성탱이 조성되었다. 우측에는 산신단(山神壇)이 있다.

관음전(觀音殿)

김덕삼 스님 이후 임재현 스님이 계셨고, 1975년부터는 비구니(比丘尼) 도경 스님이 계셨으며 2017년부터는 비구니 우성(愚惺) 스님이 현 주지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관음전 바로 앞 바위 밑에는 석조(石造) 포대화상과 동자승 2명이 앉아있는데 한 동자는 염불 중이고 또 한 동자는 책을 펴고 법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정겹다.

3층 석탑은 절 바로 앞 바닷가 바위 위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도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절 우측 높은 곳에 해수관음보살 입상과 문수동자, 동자 스님이 모셔져있다. 요사채는 블럭조에 2층 박공형(朴工型)으로 가정집처럼 보인다.

죽도(竹島)는 이름 그대로 본래에는 대나무 섬이었으나 이제는 육지와 연접해 있다. 이 섬의 대나무는 강인하여 화살대 중에는 최고의 적품(適品)으로 조선 시대에는 매년 죽전(竹箭)을 진상하였다. 주변 바위는 침식과 풍화로 인하여 웅장하면서도 묘한 모양을 하고 있어 모양에 따라 갈매기 바위〔농구암(弄鷗巖)〕, 선녀탕(仙女湯), 신선바위〔방선암(訪仙巖)〕라 부른다.

바위 뒤에는 연사대(煉砂臺)라는 암각 문이 있는 부채 바위와 청허대(淸虛臺), 정씨세적(鄭氏世蹟) 등의 각자(刻字)가 있어 뜻이 궁금해진다.

절 입구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신선이 밤마다 찾아온다' 하여 방선암(訪仙巖)이라 부르며 음각된 각자가 있다.

관음전 내부

섬 정상 8부 능선 동쪽 방향에 죽도정(竹島亭)이 있다. 현남면 유지들이 주축이 되고 행정에서 지원하여 1965년 5월 13일 건립되었다. 2017년 죽도봉 정상에 19.5m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하였다. 남쪽으로는 인구 항과 해변이 한눈에 보이고 멀리 휴휴암까지 바라볼 수 있다. 북쪽으로는 시변리 해수욕장과 동산항이 펼쳐져 있다.

● 죽도암

一葉紅蓮在海中 (일엽홍련재해중) 한 잎사귀 붉은 연꽃이 바다 가운데 있더니
碧波深處現神通 (벽파심처현신통) 푸른 파도 깊은 곳에서 신통을 보이시네
昨夜寶陀觀自在 (작야보타관자재) 어젯밤 보타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께서
今日降赴道場中 (금일강부도량중) 오늘 이 도량에 강림하셨네.

해수관음보살상

망월사
(望月寺)

■ 창건 및 연혁

망월사(望月寺)는 양양군 서면 약수길 45(오색리 산 1~20번지) 오색약수터 바로 윗쪽에 위치하고 있다. 불기 2300년(1756)에 창건했다는 설은 있으나 문헌에서 찾을 수 없으며 주변의 아름찬 고송으로 인해 역사를 짐작할 뿐이다.

최초는 점봉산 기슭의 약초 뿌리 우려낸 용궁정(龍宮井) 감로수로 세상살이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약사여래의 명을 받아 이 절을 세웠다고 한다. 즉 산속에서 솟아나는 감로수는 양(陽)이요, 암반에서 솟아나는 약수(藥水)는 음(陰)이다. 이물을 고르게 마시면 음양의 조화와 부처님의 영험한 가피(加被)로 병을 고쳤다는 소문에 참배객이 끊이지 않던 도

대웅전(大雄殿)

량이다. 특히 건너편에 도서관 자리가 있어 대덕 스님과 시인 묵객들이 머물다 가던 곳이다.

불기 2545년(2001) 윤4월 김광태 보살이 백일기도를 마친 후 건강을 회복하여 약사여래를 모시게 되어 요사채를 옮기게 되었는데 동편 요사채 상량문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대공지조작자(庚申年庚申月庚申日庚申時姜大公之造作者)』라 표기되어 있었다. 경신(庚申)은 60갑자 중 57번째로 경신에 해당하는 날 복을 얻는다는 도교 풍습으로 경신수야(庚申守夜)에서 유래하였다.

▶ 경신수야(庚申守夜) : 도교(道敎)에서 나온 풍습(風習)으로 '섣달(음력 12월) 중 경신에 해당 하는 날 복(福)을 얻는다' 하여 밤을 세우는 일 경신년이면 1970년대에 이 건물이 존재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보면 지금부터 100여년 전인 1920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의 망월사는 금당인 대웅전(大雄殿)의 칠성탱과 산신탱의 봉안연대로 보아 병진(丙辰)년 즉 1956년 3월로 당시 주지인 성보 스님이 망월사를 창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 명확한 연도는 모르나 1960년대에는 보성(寶城)스님 즉 정두석(鄭斗石) 박사가 망월사에 주석하였다고 한다.

▶ 보성스님 : 1919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김보련 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여 동국대학 총장을 역임 또한, 전 태고종 제12세와 15세 종정을 하였다.

1970년대에는 비구니 김망월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았다고 한다. 사명인 망월(望月)은 보름달로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묘리(妙理)로 깨달음을 의미한다.

망월 스님 이후에도 2002년 비구니이신 현재(現在) 스님으로 이어져 1970년대부터 비구니(比丘尼) 수련 도량으로 대한불교보문종(大韓佛敎普門宗) 소속이었다가 지금 주지(2019. 11. 11일 주석)인 일월선서(一月善逝) 스님이 비구(比丘)인 까닭에 현대불교조계종(現代佛敎曹溪宗)에 등록하여 복수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경내에는 요사채 2동(종무소와 주지스님의 거처, 공양간과 빈객의 거처), 마니차와 징, 포대화상과 8각 정자, 약사보살(2001년 봉안)과 용궁정 감로수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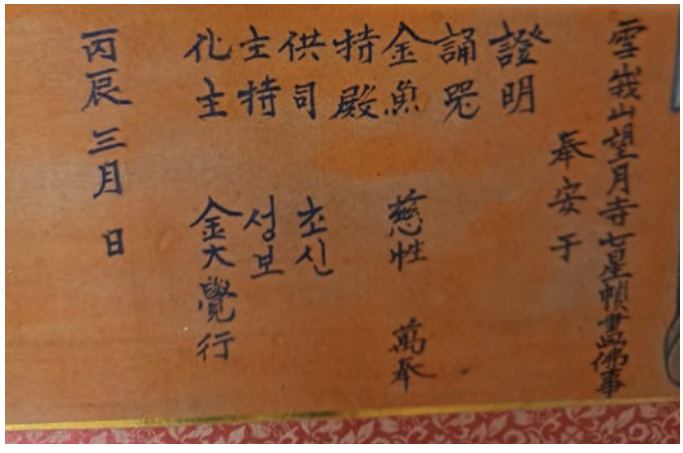
대웅전 석가모니불

대웅전 칠성단

● 대웅전

금당은 대웅전(大雄殿)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경북 칠곡에서 불모(佛母)로 유명한 명장께서 직접 수작업으로 6개월이나 공들인 석조 석가모니 부처님(釋迦牟尼佛)을 2020년에 본존으로 모셨다. 원석은 경주 돌로 낮에는 분홍색

빛이 돌아서 석굴암의 부처님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그전에는 법당(法堂) 대비 너무 작은 동(銅)으로 된 아미타 여래를 모셨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서 대웅전을 금단청(金丹靑)으로 다시 단장 하였다고 한다. 대웅전을 빼고 요사채 모두는 토지가 재경부 땅인 국유지로 무허가 건물이라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칠성단 [치성광여래, 일광보살, 월광보살]과 산신단을 금당 내에 모시고 있다.



칠성단 봉안 기록(1965년)

▶ **망월사(望月寺) 대웅전(大雄殿) 주련(柱聯)**

威光偏照十方中 (위광편조시방중)
부처님의 위대한 빛이 시방세계에 가득 차고
月印千江一體同 (월인천강일체동)
천 갈래 강에 비친 달은 천 개로 보여도 근본은 하나
四智圓明諸聖士 (사지원명제성사)
사지에 원만이 밝은 많은 성인들 (※ 四智 : 大圓鏡智, 平等性智, 妙觀察智, 成所作智)
賁臨法會利群生 (분임법회이군생)
커다란 법회에 임해서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네.

● 마니차(摩尼車)

마니차는 티베트 불교에서 사용되는 불교 도구로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측면에는 만트라가 새겨져 있다. 이것을 돌리면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한 번 읽는 의미로 대개는 마니차[윤장대:輪藏臺]안에 인쇄된 경전이 들어 있다.

"마니"는 우리말로 "지혜"를 말하며, "차"는 바퀴를 뜻하여 마니차는 '지혜의 바퀴', 곧 법륜을 굴린다는 의미다.

망월사 요사체 옛 상량문/庚申年 庚申月 庚申日

● 망월사 역 고드름 이적(異蹟)

주지이신 일월선서 스님께서 부임 후 2019. 11. 11일부터 『망월사 3년 기도 정진』의 대원을 세우고 정진하던 중 2021년 11월, 새벽 4시 기

도 후에 사시(巳時) 마지(摩旨) 공양을 위해 금당 안에 들어서니 공양한 감로차(甘露茶)가 얼어있는데 유독 본존불 앞에 놓인 다기(茶器)에만 『역 고드름』이 올라오는 이적(異蹟)이 생겨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둘째 날에는 칠성단 다기에, 셋째 날은 산신단 앞에도 똑 같은 신기한 현상이 생겨서 사진으로 남겼다 한다. 특히 이날은 다른 곳에는 얼음조차 얼지 않았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견불사
(見佛寺)

■ 창건 및 연혁

견불사(見佛寺)는 양양군 현남면 견불길 206-18(견불리 327번지)에 위치한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사찰이다.
1972년 지금의 공양간으로 쓰이는 옛 절터에 연봉 스님이 창건하였다. 현 주지는 2014년도부터 이곳에서 소임을 맡고

인법당(因法堂)

있는 견불(見佛) 스님으로 속명은 손석지로 견불리에서 출생하였다.

지금의 견불사는 정면 6칸 측면 3칸의 콘크리트 기둥의 팔작지붕으로 1980년대 초에 지었다고 하는데 인법당(因法堂) 이다.

현판은 따로 없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천수천안관자제보살, 약사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다.

법당내 동쪽은 화엄성중(華嚴聖衆)을 모셨으며 서쪽은 영가단을 설치하고 작은 지장보살상을 여럿 배치하였다.

경내에는 화강암에 조성한 마애불(磨崖佛)들이 놓여져 있다.

절 뒤편에는 최근에 조성한 삼성각이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치성광여래와 용왕대신과 산왕대신이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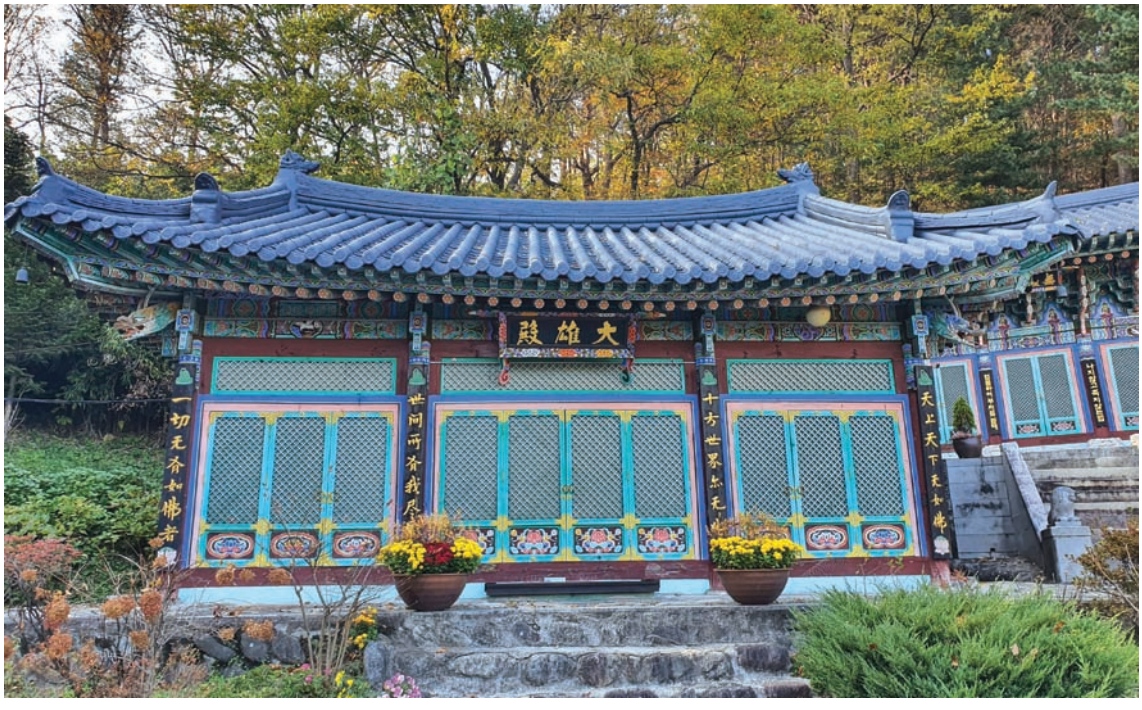
인법당 석가모니불

마애불

지장사
(地藏寺)

■ 창건 및 연혁

지장사(地藏寺)는 양양군 양양읍 거마천로 547(화일리 340번지)에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의 사찰이다.
비구니(比丘尼) 원정(元淨) 김상녀(金相女) 스님이 1985년에 창건하였고 지금은 비구니 지봉(智峰) 한동희 스님이 주지이다.



대웅전(大雄殿)

절 이름과는 달리 지장사에는 지장전이 없는데 금당인 대웅전(大雄殿)에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여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로 있다. 금당은 정면 3간, 측면 2간의 팔작지붕 모양이며 금당 정면에는 2000년에 조성한 5층 석탑이 있다.

금당 동측 뒤편에는 무량수전(無量壽殿)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곳에 탱화 산신(山神)이 치성광여래불상(熾盛光如來佛像)과 나반존자(那畔尊者)와 함께 모셔져 있다.

금당 서쪽 옆에는 동북쪽을 향하여 지어진 염불전(念佛殿)이 있는데 맞배지붕형태의 전면 4간 측면 2간의 건물이다. 손바닥을 펴 오른쪽 어깨로 올린 석가모니상과 영가단이 있다.

대웅전 석가모니불

본래 염불(念佛)은 부처님을 생각하며 불보살의 이름을 암송(暗誦)하여 마음이 부처처럼 되는 수행법으로 예전에는 많은 절에 염불전이 있었다고 하나 요즘에는 드물다. 이 밖에도 요사채 겸 공양간과 연당(蓮塘)이 있다.

● 대웅전 주련

天上天下無如佛 (천상천하무여불)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 없네
十方世界亦無比 (시방세계역무비) 온 세상 둘러봐도 비교할 이 없네
世間所有我盡見 (세간소유아진견)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다 보았지만
一切無有如佛者 (일체무유여불자) 부처님 같은 분 어디에도 없네

＊선학원

선학원(禪學院) 중앙선원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에 있다. 식민지 불교정책의 잘못을 타도하기 위해 만해(卍海) 스님을 중심으로 우리 불교 찾기운동을 하였다. 일제의 사찰령을 견제하며 임제종(臨濟宗) 전통을 수호해 온 불교계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만공(滿空) · 용성(龍城) · 혜월(慧月) · 도봉(道峰) · 석두(石頭) · 남천(南泉) · 상월(霜月) 등 큰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1920년 서울에서 설립되었는데 광복후에는 불교 정화의 산실이 되었다.

이처럼 호국(護國)과 호민(護民)의 법통을 굳혀온 선학원은 1934년 12월 5일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량수전

염불전

문수사
(文殊寺)

■ 위치와 창건

문수사(文殊寺)는 대한불교천태종(大韓佛敎天台宗)에 속한 사찰로 구인사(救仁寺)의 말사이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고치물길 17-2(서문리 280-1번지)에 위치해 있다. 창건주는 안원근 스님으로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275번지 신도집에서

원통보전(圓通寶殿)

5~6명이 모여서 신도회를 구성하였고 1978년 양양읍 청곡리 209번지 민가(民家)로 이주하여 첫 법회를 열었다. 1984년 속초지회 양양분회에서 양양지회로 독립 승격되었다.

현재 문수사가 위치하는 곳은 원래 양양천주교회가 있었던 곳인데 1936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양양을 비롯한 강원도 동해안을 강타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적 피해가 있었던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으로 성당이 쓸려간 이후 성당은 성내리로 옮겨가고 과수원으로 이용되다가 1987년 문수사가 이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1987년에는 지금 법당 앞의 요사채로 쓰이는 건물에 관세음보살을 모시다가, 2003년 10월 10일에 지금의 금당이 완성되어 제2대 종정 큰스님과 총무원장 및 본산 대덕 스님을 모시고 신도 약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관음존상 봉안식과 원통보전 낙성식을 봉행하였다. 현재는 덕련(德蓮) 스님(본명:정호영)이 주지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원통보전 관세음보살상

천태종의 소의(所依) 경전은 법화경(法華經)으로 대한불교 천태종은 세종 6년의 종파 폐합에 의해 없어진 해동 천태종을 원각대조사(圓覺大祖師) 상월(上月:1911~1974년)이 1966년에 개창을 선포하면서 다시 성립되었다.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義天:1055~1101년)을 개창조로 하고, 원각대조사 상월(上月)을 중창조로 한다.

문수사는 시멘트 2층 건물로 연건평은 300평에 이르는 웅장한 팔작지붕의 법당과 요사채 1동, 공양간 겸 식당 1동이 있다. 법당 1층은 종교시설로 대기도실을 포함하여 기도실이 3곳이나 있으며 기도실에도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는 특징이 있다. 2층은 법당인 원통보전(圓通寶殿)으로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협시로는 문수동자와 동해용왕을 모셨다. 보살 우측 조사단에는 원각대조사(圓覺大祖師) 상월(上月)의 영정을 모셨다. 특이한 점은 일반 사찰의 영가단 위치에 관음단을 조성하여 33관음존상을 모시고 있으며 일반 사찰의 신중단 위치에는 영가단을 조성하였다. 법당 내외에는 많은 벽화와 주련이 있는데 그중 법당 내부에 있는 반야용선(般若龍船)에 올라 여러 중생을 이끄시는 관세음보살 벽화가 이목을 끈다.

원통보전 33관음존상

● 문수사 원통보전 주련

白衣觀音無說說 (백의관음무설설) 백의관음 말없이 말씀하시고
南巡童子不聞聞 (남순동자불문문) 남순동자 들음 없이 들으시네.
甁上綠楊三際夏 (병상녹양삼제하) 화병 위의 푸른 버들 늘 여름이요
巖前翠竹十方春 (암전취죽시방춘) 바위 앞에 남색 대나무는 봄을 알리네.
一葉紅蓮在海中 (일엽홍련재해중) 한 떨기 붉은 연꽃 바다 속에 있으니
碧波深處現神通 (벽파심처현신통)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나투시네

용화사
(龍華寺)

■ 창건 및 연역

용화사(龍華寺)는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길 608~68(법수치리 33번지)에 위치한 태고종 사찰이다. 용화사를 창건한 사문(沙門) 김혜원(金惠洹)은 불기 2513년(1969) 3월 3일 향로봉(香爐峯) 월천곡(月川谷)에서 입도(入道)하였으며 2009년(85세) 입적하였다.

불기 2515년(1971) 4월 3일 오색석곡(五色石谷 : 남설악 호텔 맞은편)에서 오색리 용암사(龍巖寺)를 창건하였다가 불기 2535년(1991) 5월 26일 현 위치인 법수치리 33번지 토골에 절을 이전 신축하면서 용화사(龍華寺)로 개칭하였다.

현재는 2018년부터 주석하신 법성(法性)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전각으로는 대웅전, 삼성각, 범종각('94년 조성), 요사체가 있으며, 9층 석탑과 7m 높이의 석조 아미타여래 입상, 창건 공덕비, 감로수각이 있다.

대웅전(大雄殿)

대웅전 석가모니불

■ 전각(殿閣) 등

● 대웅전(大雄殿)

금당은 대웅전으로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골기와 팔작지붕으로 91년에 신축하였다. 법당 내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 모셨으며, 협시로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약사보살(藥師菩薩)이 모셔져 있다.

정면에는 석가모니불 후불탱화가 있으며 신중단에는 지장보살 탱화가 모셔져 있다. 영가단에는 탱화에는 불기 2535년(1991) 5월 22일이라는 조성 연월일이 표기되어 있다.

● 삼성각(三聖閣)

1994년경에 조성하였다. 용화사 삼성각은 별도의 상(像)은 없으며 탱화로만 삼성을 모셨는데 칠성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좌측에 가운데는 산신, 우측은 나반존자(那畔尊者)를 모셨다

삼성각

● 창건공덕비(創建功德碑)

전면에는 용화사 창건공덕비 사문 김혜원(煩起)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으로 보아 좌측면에는 불기 2512년 3월 3일 향로봉 월천곡에서 입도, 불기 2515년 4월 3일 오색 석곡에서 성불 동년 오색리 용암사 창건, 우측면은 불기 2535년 5월 26일 이곳 토골에 다시 용화사를 창건, 서기 1993년 10월 7일 건립, 근서(謹書) 정원철(鄭元澈)이라고 새겨져 있다.

종각 및 여래입상과 창건 공덕비

동해사
(東海寺)

■ 창건 및 연혁

동해사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며,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198(학포리 156)에 위치하고 있다.

1992년 의륜(義輪) 서주범(徐周範)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 현재는 의륜 스님의 시봉(侍奉) 상좌(上佐)였던 무일(無一) 금숙희(琴淑熙) 스님이 16년째 주지 소임을 다하고 있다.

현재 금당은 대웅전(大雄殿)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고 골기와 팔작지붕이다. 주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좌 보

대웅전(大雄殿) 과 삼성각(三聖閣)

처는 관세음보살을, 우 보처는 지장보살을 모셨다.

대웅전을 바라보면서 우측에는 중생의 고통과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 감로수(甘露水) 병을 든 석조 관세음보살 입상이 있다. 대웅전 좌측에는 삼성각이 있다. 삼성각 앞쪽에는 요사채가 있다.

금당과 삼성각 사이에는 1993년 감로비가 내렸다는 약수터가 있다. 양양군지 기록을 보면 "임신년인 1993년 10월 12일 대웅전과 삼성각 사이 약수터에 모셔놓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 사찰에서 12km 떨어진 양양군 서면 논화리 기도원터(불탑사)를 마련하여 옮기던 중 맑은 하늘에서 감로비가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한다. 이 소식은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렸으나 2006년 시사저널에 의해 '법우 현상'은 노린재 목(目)에 속하는 '매미충'이라는 곤충의 분비물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밝혀졌다.

대웅전 석가모니불

시사저널은 동해사 불상 자리 뒤에 있는 자작나무 가지에서 채집한 곤충을 고려대 곤충연구소 문태영(文太映) 박사에 의뢰해 이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문제의 매미충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식 학명은 '매미충과 끝검은 말매미충'(Cicadellidae Bothrogonia japonica Ishihara)이다. 이 곤충은 월동 직전인 가을이 되면 '군집 페로몬'을 형성해 한 군데로 모여들며 섭식 작용이 왕성해져 수액 분비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지는데 수액을 분비하는 기간은 섭식 작용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동해사 빗물 소동은 월동 직전의 매미충이 자작나무 가지에 집단으로 모여 왕성하게 수분을 내뿜는 현상을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착각해 일어난 것이다."

● 대웅전 주련

日出東海大佛殿 (일출동해대불전) 해 뜨는 동해의 커다란 부처님 집에서
衆生煩惱放下著 (중생번뇌방하착) 중생이 번뇌를 다 내려놓으니
一日念佛解脫道 (일일염불해탈도) 하루의 염불로 해탈의 길을 찾았고
一生念佛成佛道 (일생염불성불도) 일생의 염불로 부처 되는 도를 깨쳤네.

불탑사
(佛塔寺)

■ 창건 및 연혁

설악산(雪岳山) 불탑사(佛塔寺)는 양양군 서면 설악로 2073-134(서면 논화리 390번지)에 위치해 있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韓國根本佛敎曹溪宗) 총본산으로 1992년 의륜(義輪) 서주범(徐周範)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

불탑사(佛塔寺) 전경

절 입구에 들어서면 우측 산밑으로 분양이 되지 않은 37기의 작은 납골탑이 있다.

이곳을 지나면 첨성대(瞻星臺) 같은 모양의 2층 건물에 '설악산(雪嶽山) 불탑사(佛塔寺)' 란 석재(石材) 현판이 걸려 있다. 1층을 통과하려면 두 분의 금강역사(金剛力士) 앞을 지나쳐야 하는데 다른 절의 사천왕문의 기능을 한다.

이곳 다음 건물은 1층은 슬라브 구조, 2층은 조립식 박공형 지붕의 요사채다. 길을 따라 더 오르면 '불탑사 종무실 겸 총본산 총무원 사무실과 불교회관' 으로 쓰이는 꽤 큰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데 설법보전(說法寶殿)과 설법전(說法殿)의 현판이 붙어있다. 설법전 앞에는 5층 석탑이 있다

이 건물 동쪽에는 1982년부터 운영해온 굴법당(窟法堂) 형태의 석굴암(石窟庵)이 있는데 석조 석가모니불을 모셨다.

건물 동쪽편에는 석조 지장보살이 금장(金杖)을 짚고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데 태아(胎兒)의 영혼을 고통과 원한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태안지장보살(胎安地藏菩薩)이다.

좌측 2층 콘크리트 건물은 법왕박물관(法王博物館)이나 운영을 멈추었다. 다만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소품의 부처상이 2015년부터 전시되어 있다.

이 건물 뒤의 금당인 대웅전(大雄殿)으로 지권인(智拳印)을 한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본존불로 하여 좌측에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오른쪽에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한 노사나불(盧舍那佛)을 모셨으며, 2015년부터 팔보살(八菩薩)을 함께 모셨다고 한다. 그 앞에는 범종각으로 2017년에 건립하였으며 4물(범종, 북, 목어, 운판)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대웅전 동쪽에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창종사적비(韓國根本佛教曹溪宗創宗史積碑)와 승탑이 전면 3기 후면 15기가 있다.

대웅전 마당에는 5층 석탑이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이운(移運)해 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한다. 서쪽에는 석조 미륵불상이 있으며, 초대 법왕인 일붕(一鵬) 서경보(徐京保) 존자상(尊者像)과 2대 법왕인 의륜 서주범 대사의 상이 건립되어 있다. 이곳 뒤에는 삼성각(三聖閣)이 있다.

대웅전

대웅전 비로자나불

대웅전 주련

我昔所造諸惡業 (아석소조제악업) 아득한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皆由無始貪瞋癡 (개유무시탐진치) 그것 모두 끝없는 탐진치로 생기었고
從身口意之所生 (종신구의지소생)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一切我今皆懺悔 (일체아금개참회) 일체를 나는 지금 모두 다 참회합니다.
天上天下無如佛 (천상천하무여불) 천상, 천하에 부처님 같으신 분 없으시고
十方世界亦無比 (십방세계역무비) 시방세계에도 견줄 분이 없도다!

보현정사
(普賢精寺)

■ 위치와 창건

보현정사(普賢精寺)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딴봉길 30-9(양양읍 조산리 534-1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에 소속된 사찰로 신흥사(神興寺) 말사이다. 홍구(弘九) 스님에 의해 1993년 창건되었으며 2016년 1월 14일부터 정법(淨法) 스님이 주지로 사찰을 운영하면서 2017년 4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사찰이 되었다.

절에 들어서면 절 마당 앞에 소나무가 심어진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을 등지고 앉은 알맞은 크기의 균형 잡힌 석산에 넉넉한 미소로 반기는 포대화상을 볼 수 있다.

전각으로는 대웅보전, 삼성각, 공양간과 요사채가 있다.

● 대웅보전(大雄寶殿)

금당인 대웅보전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팔 작지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을 협시로 삼존불(三尊佛)을 모셨다. 이 불상은 조성된 지 400년 정도 된 불상으로 인제군에 있는 "고려불교미술박물관" 장호걸 관장님으로부터 기증받아 모시게 되었는데 경상남도가 1991년도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개발지 내에 있던 기존 사찰이 폐사하게 되어 이곳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석고(石膏)로

대웅보전(大雄寶殿)

조성하여 개금(改金)하였다.

이 불상의 복장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는데 2017년에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원 중 하나인 1,600m 높이의 도이수텝 산에 위치하고 있는 사원과 정법 스님의 인연으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곳에 이운(移運)해 오게 되었는데 2023년 삼층석탑을 건립하기 전까지 복장하여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대웅보전 석가모니불

삼존불 좌측에는 수월관음도가, 우측에는 관세음보살의 반야용선도(般若龍船圖)가 벽화로 조성되어 있으며 수월관음도 앞에는 마니차(摩尼車) 3대가, 용선도 앞에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이 있다. 삼존불 앞에는 수정(水晶)으로 된 커다란 투명(透明) 여의보주(如意寶珠)가 두 개 놓여있는데 2021년 초파일에 건봉사(乾鳳寺) 주지 현담 스님께서 제자인 정법 스님께 선물한 것이라 한다.

또한 법당의 부처님 앞에 켜는 인등(引燈) 탑이 2기 있다. 인등은 "부처님께 인도한다." 는 의미로 다겁생(多劫生)에 익혀온 무명을 밝히고 복덕과 지혜를 밝히는 참회와 발원으로 자기의 소망을 부처님께 기도하는 등불 공양이다.

● 보현정사 대웅보전 주련

天上天下無如佛 (천상천하무여불)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 없으시네.
十方世界亦無比 (시방세계역무비) 온 시방세계 둘러보아도 또 비교할 만한 이 없고,
世間所有我盡見 (세간소유아진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살펴보았지만,
一切無有如佛者 (일체무유여불자) 부처님같이 존귀한 분 찾을 수가 없네

● 삼성각(三聖閣)

대웅보전 서쪽인 공양간 2층 계단을 오르면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다. 독성인 나반존자(那畔尊者), 칠성인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 산신인 산신령(山神靈)이 차례로 탱화로 모셔져 있다.

삼성각

현불사
(見佛寺)

■ 창건 및 연혁

현불사(見佛寺)는 왕금산(王金山) 아래인 양양군 현남면 매호길 281(후포매리 224-2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말사다. 적멸(寂滅) 스님이 불모지인 이 지역에 1991년도에 도착하여 왕금산을 보고 부처님의 상주함을 확신한 후 사찰 창건을 계획하게 되었다.

취정선원을 1993년에 건립하고 1999년에 큰 법당인 『비로전(毘盧殿)』을 건립함으로써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02년 5월 31일 백옥(白玉) 비로자나(毘盧遮那) 부처님을 큰 법당에 봉안하였고, 2013년 4월 8일에는 깨완수 토굴(신도 숙소)이 신축되었다.

2017년 4월 22일에는 3층 석탑인 성공탑(成功塔)을 건립하였다.

현불사(見佛寺)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영험을 내리는 기적이 빈번하도록 뵈올 현(見) 부처 불(佛)을 따서 현불사(見佛寺)로 이름을 지었다 한다.

■ 취정선원(翠庭禪院)

취정선원((翠庭禪院)은 강릉에 거주하던 취정(翠庭) 염재근선생의 시주로 1993년 개원하였다.

인법당(因法堂)인 취정선원(翠庭禪院)은 전면 6간 측면 3간 폭 3간의 "ㄱ"자형의 팔작지붕이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으며, 석가모니불과 지장보살 사이에는 애기 부처님이 하늘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며 서 있다. 또한 백옥으로 조성한 작은 비로자나불과 인등(引燈)이 있다.

취정선원(翠庭禪院)과 큰 법당

취정선원 측면에는 작은 동종(銅鐘)이 나란히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현불사의 주소와 사명(寺名)이 한자와 한글로 양각되어있으며 조성 연대는 불기 2535(1991)년 4월 8일로 취정선원 착공 당시에 주조(鑄造)되었다. 또 다른 종은 불기 2553년(2005) 5월 15일 조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취정선원 앞에는 2017년도에 조성한 3층 석탑이 있는데 지대석 위에는 작은 백옥 비로자나불이 면마다 13분씩 놓여 있다.

현불사 앞 900m 지점에는 불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취정 염재근선생 공덕비가 불기 2559년(2015) 9월 27일에 세워져 있다.

■ 금당과 백옥 비로자나불

금당인 비로전은 1999년에 창건되었다. 세계인의 화합을 발원하며 2002월드컵 개막에 맞추어 백옥(白玉)으로 탁마(琢磨)한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 점안식(點眼式)을 하였다.

현 주지이신 적멸(寂滅) 스님은 1991년부터 이 절에 주석하였는데 비로자나불을 모시기 위하여 직접 중국까지 찾아가 하남성(河南城) 소림사 근처에서 백옥(白玉) 원석(原石)을 구했다고 한다. 원석을 수송해 와서 익산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불모(佛母) 장인(匠人)을 섭외하여 불상을 조성하게 하였다. 좌상(坐像)의 높이는 3.3m이며 좌대(座臺)를 포함하면 4.5m이다.

큰 법당 백옥비로나자불

금당은 단청과 현판이 아직 없으며 전면 3칸 측면 3칸으로 건축양식은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의 정사각형 건물로 층고(層高)가 높아서 웅장하게 보인다. 앞으로 현판은 비로전(毗盧殿)으로 할 계획이며 단청 없이 목재를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건물은 정방형의 남향(南向)으로 법당문의 크기는 가운데 15자, 좌우 측면 12자로 하고 가운데 칸은 기둥 사이를 넓게 잡아 네 짝 분합문(分閤門)을 달고 좌우 협칸(狹間)은 좁혀 두 짝 분합문을 달았다. 비로자나불 정면인 남쪽의 모든 문은 격자 문살로 햇빛이 잘 들도록 했다. 동쪽의 가운데 문살과 좌우 측면, 서쪽은 모두 빗살문이다. 하루 동안 해의 이동 방향을 고려하여 문살을 배치하였다 한다.

금당 앞 양쪽에는 공작단풍(孔雀丹楓)이 두 그루 서 있으며 양쪽 계단 사이에는 허리쯤 되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절 마당에도 소나무 군락이 눈에 띈다.

■ 깨완수 토굴

사찰 맞은편 방향인 포매천 건너에 황토집이 있는데 이른바 『깨완수 토굴』이라고 한다. 전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사찰의 방문자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숙박을 위해 2013년에 지어졌다.

깨완수는 "깨달음, 인격의 완성, 수행"에서 한자씩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휴휴암
(休休庵)

■ 창건및 연혁

휴휴암(休休庵)은 강원도 양양군 광진2길 3-16 (현남면 광진리 1번지) 바닷가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말사인 암자다. 휴휴암이라는 암자명은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쉬고 또 쉬라"는 의미에서 지어졌다하는데 전체적으로 금구음수형(金龜飮水形)의 명당이다.

휴휴암(休休庵) 전경

풍수에서는 거북이를 신령한 동물이면서 장수하고, 한 번에 50여 마리의 알을 낳아 재물 번성시키거나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예부터 거북이와 학은 오래 살라는 축복의 의미로 학수구령(鶴壽龜齡)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거북이 형태를 띤 명당은 산과 물의 조화와 지형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곳은 금구음수형(金龜飮水形으로 금 거북이가 머리를 쭉 빼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듯한 형국이다. 특히 거북이의 목 옆인 견장과 꼬리나 생식기 인근의 알을 낳는 부분을 명당의 혈로 지목한다.

1997년 홍법 스님이 창건한 이곳은 묘적전(妙寂殿)이라는 법당 하나로 시작되었으나 1999년 바닷가에 누운 관세음보살 형상의 바위가 발견되면서 기도처로 유명해졌다. 바닷가에는 활짝 핀 연꽃을 닮아 연화대(蓮花臺)라고 이름 지어진 너럭바위가 있다.

연화대에서 관세음보살 와불(臥佛) 형상의 바위를 볼 수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밖에 발가락 바위, 발바닥 바위, 주먹 바위 등 기이한 모습의 기암괴석이 신비감을 더한다. 때로는 해변으로 먹이를 찾아오는 황어 떼와 고기를 찾아오는 청둥오리도 만날 수 있다. 휴휴암에는 불이문, 묘적전, 다라니 굴법당, 관음범종, 지혜관세음보살상 등이 있다.

개간비밀교 (강원도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177호로 등록)

■ 문화재자료

양양 휴휴암 소장 개간비밀교 (襄陽 休休庵 所藏 開刊秘密敎) 1책이 2021년 12월 17일 강원도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177호로 지정되었다.

간행 시기와 작자가 명시된 밀교 의식집이다. 흔하지 않은 밀교 계통의 개설서로 조선 시대에 숭유억불 정책하에서도 민간에서 밀교가 널리 퍼져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한글, 한문, 범문을 병기하여 조선 후기 한글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승려 몽은 등이 밀교의 의식과 절차를 찬술하여 1784년에 간행한 불교 의례서로 『밀교개간집(密敎開刊集)』 또

는 『밀교집(密敎集)』이라고도 한다. 몽은이 그의 스승인 위기(暐基)의 범서(梵書)를 받아 설악(雪嶽) · 연파(戀波) · 혜봉(慧峯) 등과 함께 찬술하였다. 경상북도 성주 불영산 수도암(修道庵)에서 처음으로 개간(開刊)하였다

책의 첫머리에 환우(喚愚)의 개간밀교서(開刊密敎序)와 산포(山逋)의 비밀교개간서(祕密敎開刊序)가 있고, 한글 표기의 용례(用例)가 있다. 책의 끝에는 비밀교를 개간할 때에 도움이 된 속인과 승려의 명단이 있고, 이어서 간기(刊記)가 있다. 모든 진언은 범어와 한글음을 병행하여 기록하였다.

내용은 크게 밀교(密敎) · 행문(行文) · 관문(觀文)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이문(不二門)

■ 전각(殿閣) 등

● 불이문(不二門)

우리 관내에서는 이 절에만 불이문이 있다. 절의 본당에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다. '불이(不二)'는 진리는 본래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본래 다르지 않고, 삶과 죽음이 본래 다르지 않으며 만남과 이별이 본래 다르지 않다. 천상천하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다 밀접하게 연결된 상호의존적인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이(不二)는 일체의 분별을 떠나고 언어의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절대 경지를 상징한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는 의미다. 불이문은 해탈문으로도 불리지만 해탈문을 따로 둔 절도 있다.

● 묘적전(妙寂殿)

묘적(妙寂)은 "빼어나게 훌륭하고 고요하다."는 뜻이다. 또는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묘하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묘적전(妙寂殿)'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묘적전(妙寂殿)

묘적전 천수관음상

묘적전이 이 절의 첫 전각이었다고 하며 빼어나게 훌륭하고 고요한 곳이기에 절을 지었을 것이다. 본존불은 천수관음(千手觀音)으로 그 옆에 선재동자를 모셨으며, 대형 목각 신중탱과 영단 탱화를 좌우에 모셨다. 묘적전은 정면 3칸에 측면 3칸으로 맞배지붕이다.

▶ 묘적전 주련

一葉紅蓮在海中 (일엽홍련재해중) 한 잎사귀 붉은 연꽃이 바다 가운데 있어
碧波深處現神通 (벽파심처현신통)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보이셨으니,
昨夜寶陀觀自在 (작야보타관자재) 어젯밤 보타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이
今日降赴道場中 (금일강부도량중) 오늘 이 도량에 강림하셨네.

● 굴법당(窟法堂)

이곳은 다라니 굴법당으로 전각과 연결하여 굴을 뚫어 법당을 만들었다.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에 나오는 부처와 보살 그리고 천왕을 불화로 그려 봉안하여 다라니를 모르고 기도하는 불자들을 위해 다라니 해설집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수미단이란 상상의 산인 수미산 형태의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불상을 모시는 불단를 말하는데 굴법당 중앙에 수미단(須彌壇)이 자리하고 있다. 수미단을 중심으로 좌, 우 통로의 벽에 불화가 그려져 있다. 수미단에는 수정 보탑(寶塔)이 있으며

굴법당

이 탑속에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데 '부처님 진신사리' 라 한다.

굴법당 진신사리

● 포대화상(布袋和尙)

묘적전 계단을 내려서면 감로수각(甘露水閣)이 있고 그 옆에는 포대화상과 동자승들이 모여앉아서 너털 웃음으로 방문객을 반기고 있다.

● 비룡관음전(飛龍觀音殿)

비룡관음전은 2층으로 1층은 카페로 운영되며 2층은 법당으로 운영된다. 감로수 병을 든 관세음보살께서 여의주를 입에 문 청룡을 타고 계신다. 관음보살 오른쪽에는 동해용왕상과 동해용왕 탱화가 조성되어 있다.

비룡관음전 관세음보살상

● 법종루(梵鐘樓)

범종루의 삼천삼백삼십관 관음범종(觀音梵鐘)은 전체를 순금으로 입힌 황금종이다. 종을 치면 업장이 소멸되고 앞길이 열리며 복이 들어온다고 한다. 지옥중생에게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종소리를 울려주는 것이다. 범종루에는 특이하게도 사물(四物) 중 법고[法鼓 : 북]는 보이지 않는다.

범종루

● 지혜관음보살상(智慧觀音菩薩像)

2006년에 조성되었으며 지혜관세음보살의 높이는 33자(약 10m)이지만 좌대를 포함하면 53자(약 16m)의 높이이며, 하나의 통돌로 관세음보살의 무게는 115톤에 이른다. 좌측에는 남순동자를, 우측에는 동해 해상용왕을 배치하였다.

지혜관음은 지혜를 상징하는 책을 왼손에 들고 있어, 어리석은 중생의 지혜 발원을 위하여 관음용선(觀音龍船)을 타고 가는 형상이 장엄 되었다. 양쪽에는 각각 8부 신장이 도열해 있다.

지혜관음보살상

법상사
(法相寺)

■ 창건및 연혁

법상사(法相寺)는 양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224(둔전리 16-1번지)에 있는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의 사찰이다. 총본산은 경남 통영의 벽방산 안정사(安靜寺) 이다.

법미(法味) 스님 정상경은 설악산 내원암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탁발수행을 한 후 속초시 도문동 소재 청룡암(靑龍庵)에서 수도하던 중 현몽(現夢)을 따라 1999년 몇몇 시주자의 도움으로 이곳에 절을 창건하였다 한다.

큰법당

사찰은 2층 콘크리트 블럭조로 1층은 공양간과 요사채, 접빈(接賓)공간 등으로 쓰이며, 2층은 법당으로 쓰이는데 『큰법당』이라는 한글 현판을 달았다. 법당에는 석가모니를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다.

절 뒤편 동쪽에는 산신각이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협시로 등장하는 동해용왕을 절 뒤에 용왕각에 용왕그림으로 별도로 모셨다. 용왕각 현판도 한글이다.

용왕각과 산신각 사이의 만강현약수(卍降現藥水)라고 새긴 거북모양 비석에서는 감로수(甘露水)가 나온다.

절 뒤 서측 계단을 오르면 관세음보살 입상이 있다.

석가모니불

● 대한불교법화종

대한불교법화종은 고려 대각국사(大覺國師)를 종조(宗祖)로 1946년 5월 10일 서울 성북동 무량사(無量寺)에서 김갑열(金甲烈) 스님이 창종하였다.

1960년 8월 13일 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허가를 얻었으며, 1969년 4월 8일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불교법화종으로 불교단체등록을 하였다. 석가여래를 주불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기본경전으로 삼는다. 《법화경》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대승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불법을 펴 나라를 보호하자는 종교적 취지를 갖고 있다.

용왕각

襄陽 地域의 寺址 및 近·現代寺刹

펴낸날 | 2023년 5월
편 집 | 양양문화원 부설 양양학연구소
• 소 장 : 윤여경 • 고문 : 이종우 • 선임연구원 : 김재환
• 연구원 : 김준호, 김영미, 한상호
펴낸곳 | 양양문화원 033) 671-8762
만든곳 | 대양프리컴 033) 257-3400

본 책자에 실린 모든 이미지의 복제 및 무단사용을 금합니다.